

2024 요르단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경제 현대화 정책 추진 본격화	6
나. 일반판매세 면제 품목 확대	7
다. 투자환경법 발효로 외국인 투자 증가 예상	8
라. 요르단 중고차 시장,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10
마. MENA 지역 의료 허브국으로서의 위상 재건	11
바. 주변국과의 협력 지속	11
사. 중동 사태 발발로 불확실성 확대	12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5
2. 시장 분석	32
가. 시장 특성	32
나. 교역	35
다. 투자	40
라. 프로젝트	47
마. ODA	48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50
가. 교역	50
나. 투자 진출	53
다. 협력 유망 분야	56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60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61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62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78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82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84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85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23년 요르단 경제는 '22년(2.5%) 대비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나(2.9%), '24년 성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2.5%)할 것으로 예측 (출처: EIU)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수 감소, 재정 부족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정부 지출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향후 GDP 성장률 또한 상승세 둔화 예측
*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EIU 예상치): ('23) 17.7% → ('25) 16.2% → ('27) 15.3%
- 높은 실업률과 미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요르단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상향(달러 페그제)으로 인해 가계 소비 위축 및 부채 상환 부담 증가 예상
* '23년 1분기 요르단 실업률은 21.9%, 기준금리는 '23.1월 6.5%에서 9월에 7.5%까지 상향
- 단, 국가 경제의 약 13%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은 '23년에도 호조세 지속
* '23년 1~4월에 요르단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약 195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함
- 전 세계 식량안보 이슈 대두로 요르단 주 수출 품목인 비료·인산염의 글로벌 가격이 급등하며 요르단의 수출 호조를 이끌고 있음
* '23년 1~5월 요르단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고 수출액 기준 비료가 1위 차지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백만 명	10.1	10.3	10.6	10.8	11.1	11.3	11.5	11.8
명목GDP	십억 달러	41.4	42.9	44.5	43.6	45.2	47.4	54.2	57.4
1인당 명목GDP	달러	4,201	4,168	4,198	4,046	4,122	4,210	4,700	4,880
실질성장률	%	1.2	1.9	2.0	-1.6	1.0	2.5	2.9	2.5
실업률	%	18.3	18.6	19.1	25.0	22.0	22.9	21.7	20.9
소비자물가상승률	%	3.2	3.9	0.8	-0.4	1.9	4.4	1.9	2.4
재정수지(GDP대비)	%	-5.0	-5.3	-5.8	-9.6	-8.9	-7.0	-5.8	-4.9
총수출	백만 달러	7,511	7,750	8,317	7,943	9,357	12,380	12,752	13,262
(對韓 수출)	"	71	54	94	84	107	146	-	-
총수입	"	18,206	18,052	17,052	15,329	19,167	24,275	24,712	25,256
(對韓 수입)	"	647	520	531	469	668	821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10,695	-10,302	-8,735	-7,386	-9,810	-11,895	-11,961	-11,994
경상수지	"	-4,393	-2,963	-773	-2,505	-3,718	-4,159	-3,125	-2,593
환율(연평균)	현지국/US\$	0.708	0.708	0.708	0.708	0.708	0.708	0.708	0.708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0.07	-0.08	0.43	0.26	0.16	-0.16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0.3	9.5	7.3	7.6	6.2	11.3	-	-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자료: EIU, CEIC, 요르단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UNCTAD

- ※ 중장기 「경제 현대화 비전」 3개년 실행 프로그램('23~'25) 본격 추진 개시
- ※ 의료기기·자재 및 생활소비재 관련 품목 25개에 대해 영세율 적용
- ※ 포괄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한 「2022 투자환경법」 발효
- ※ 요르단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차 규모 줄고 친환경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 증가
- ※ 요르단으로의 의료관광 규모 회복 및 의약품·의료기기 대외 수출 증가
- ※ 주변 아랍 국가와 경제협력 지속, 단 '23.10.7부 중동 사태 발발로 불확실성 증가

가. 경제 현대화 정책 추진 본격화

▣ (개요) 요르단 정부는 중장기 경제성장 정책인 「경제 현대화 비전(Economic Modernization Vision)」 실행 프로그램을 '22년 12월부터 운영 개시

- 요르단 정부는 경제 현대화 비전의 3개년('23~'25) 실행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에너지, 제조업 등 산업 인프라 확충 추진
 - 요르단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 수립 시 '25년까지 연 GDP 성장률 3%, 소비자물가 상승률 2.5%,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5% 등의 KPI 목표를 설정
 - 정책에 포함된 380개 프로젝트 중 183개가 3개년 프로그램에 포함되었고, 각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총 46건의 법률 검토·수정 및 신법 입안 등 추진
-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3년간 약 32.5억 달러가 투입되며, 총예산의 25%인 약 8억 달러는 대외 원조로 충당한다는 계획
 - '지속 가능한 자원' 분야에 가장 많은 9.7억 달러를 배정, 수소 에너지기술 개발을 포함한 청정에너지원 탐사, 인근국과의 에너지 연결 등 추진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추진 분야별 3개년 실행계획 개요

추진 분야	프로젝트 수	3개년 예산(US\$ 백만)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투자 유치	13	79.10	81.92	80.51	241.53
고부가산업	63	128.53	149.72	166.67	444.92
미래 서비스	30	73.45	124.29	129.94	327.68
관광	6	112.99	117.23	128.53	358.76
리더십과 창의성	43	194.92	223.16	268.36	686.44
지속 가능한 자원	12	285.31	324.86	361.58	971.75
친환경 요르단	7	46.61	48.02	29.66	124.29
삶의 질	9	25.42	32.49	35.31	93.22
총계	183	946.33	1,101.69	1,200.56	3,248.59

자료: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웹사이트

▣ (전망) 요르단 정부의 경제 현대화 추진은 국내 기업 진출에 호재로 작용

- 동 프로그램을 통해 요르단-이라크, 요르단-사우디 전력망 연결 및 요르단-이집트 전력 연결 용량 증가가 가시화됨에 따라 전력 기자재 분야 진출 활발 예상
- 요르단 전반의 디지털화 추진에 따라 ICT 분야 사업 기회가 늘어날 전망
 - 요르단 정부는 산업별 국가 DB 구축, 보안 시스템 확대, 5G 네트워크 도입, 스마트 교통 시스템(ITS) 구현 등 추진 중

나. 일반판매세 면제 품목 확대

▣ (개요) '23년 3월, 요르단 정부는 총 25개 의료기기·자재 및 기타 품목에 대해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 영세율 신규 적용을 발표

- 일반판매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요르단 내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통상 16%의 세율)을 의미
 - * 일반판매세는 ①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② 요르단 내 경제특구 내 상품·서비스를 수입하는 경우 등에 적용됨

〈'23.3월부터 요르단에서 일반판매세가 면제되는 품목〉

품목명	Hs code	품목명	Hs code
의료 폐기물 멸균기	841920	신체 유연성 측정 장치	392690
의료 기기, 장비 및 소모품	901819	마사지 장치	901910
물리 치료 장비 및 용품	903180	심박수 모니터	903180
침대 및 액세서리	940410	폐활량계 모니터	901920
각종 침대 커버	630210	현금 기기	847050
세탁, 표백 또는 염색 기계	845140	유아 치료 장치	852990
다림질 기계 및 프레스	845130	영아 인큐베이터	901890
침대 헤드보드 및 액세서리	940320	멸균 기구용 용기	901890
칼	821599	침대 수유 홀더 및 IV 폴	940290
수술 도구 및 키트	901849	담요, 이불 및 각종 담요	630130
엑스레이 플레이트 및 필름	370110	의류 건조기	842112
다양한 크기의 수건	630209	다양한 차량 정차 장비	847989
식기 세척기	842290	-	-

자료: 요르단 총리실

▣ (전망) 의료 관련 용품 등이 이번 판매세 영세율 적용 품목에 다수 포함되어, 관련 국내 기업의 對요르단 수출에 탄력 전망

- '22년 한국의 대요르단 수출 품목 중, 수출액 기준 총 2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품목이 이번 영세율 적용 조치를 받게 됨
 - * 대요르단 영세율 적용 수출 품목('22년 수출액): 수술도구·키트(96만\$), 신체유연성측정장치(47만\$), 의료기기·장비·소모품(31만\$), 물리치료장비·용품(24만\$), 식기세척기(21만\$)

다. 투자환경법 발효로 외국인 투자 증가 예상

▣ (개요) 요르단 투자 관련 신법인 「2022 투자환경법(Investment Environment Law of 2022)」이 '23년 1월부터 시행에 돌입

- '2022 투자환경법'은 산업, 상업, 농업, 관광·서비스 등 요르단 내 모든 경제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됨

- 신법은 투자자에 대한 Fast-Track 제공, 인센티브 보장 등 기존 '2014 투자법 30호' 대비 추가적인 인센티브 내용을 담고 있음

〈2022 투자환경법 주요 인센티브 내용〉

법 조항	주요 인센티브
10조	①저개발 지역에서 운영되거나 ②실제 사업 운영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지속되며 최소 250명 이상의 요르단인을 고용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30% 이상 감면됨
13조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요르단 각료회의는 '인센티브·면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토지 판매·임대 가격 면제, 비용 공제, 세금·관세 면제 등의 혜택 부여 가능 ①최소 350명의 요르단인을 고용하며 전체 노동력의 50% 이상은 요르단 여성 ②50% 이상의 비율로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활동으로서 50% 이상의 비율로 요르단 내 부가가치가 있는 활동 ③지식, 기술 및 디지털 변환의 이전을 목표로 하는 활동으로서 전략적 경제 활동,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나열된 활동 ④빈곤 당사자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지역 사회 개발 및 서비스 제공 활동
15조	한 프로젝트에 500만 JOD 이상을 투자하거나 250명 이상의 요르단인을 고용한 투자자는 법률·규제·조직 조항의 수정/변경에 영향받지 않도록 보장하며, 투자자가 상기 두 조건 중 하나를 달성한 날로부터 7년 동안 법률·규제·조직 조항의 수정/변경의 비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
30조	투자자가 개발 구역 내에서 경제 활동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일반판매세 영세율 적용 (단, 개발 구역에서 생산되고 요르단의 나머지 지역에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는 일반판매세가 적용)
45조	공식 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투자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의된 규칙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 (외국/국제 중재 재판소가 외국 판결법에 따라 중재 가능)

자료: Invest.jo 웹사이트

▣ (전망) 국내 기업의 요르단 투자 진출 장벽이 기존 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최근 5년간 요르단의 FDI 유치 규모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바, 동법은 요르단의 FDI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대요르단 투자는 2022년에 전무한 상황이며, 2023년 동법 시행 시 투자유인 생성으로 인한 신규·증액 투자 기대

라. 요르단 자동차 시장,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 (개요) '22년 세계 유가 상승, 내연차 대비 전기차 관세 축소, 저렴한 중국산 EV 구매 증가 등으로 요르단으로의 전기차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 중

- '23년 1~5월 요르단으로 수입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5%, 119% 증가
 - 같은 기간, 휘발유 차량 및 경유 차량 수입 규모가 각각 13%, 28% 감소하며 요르단 수입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비중이 60%를 상회

〈2018~2022 요르단 등록 전기차(EV)〉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등록 차량 (대)	8,984	4,677	3,844	6,464	17,388
전년 대비 (%)	41	△48	△18	68	169

자료: The Jordan Free Zone Investor Commission(JFZIC)

- '22년 러-우 사태로 연료 가격이 급등한 이후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값싼 전기차에 대한 요르단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
 - 요르단 휘발유 옥탄가 95 가격은 '22년 사상 최대치(1.83\$/L)를 기록하는 등 요르단 운전자들의 내연차 유지비 부담이 가중
 - '20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요르단 정부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0%(250kW 이하 ~15%(251kW 이상)로 하향 조정된 것도 전기차 수입 증가의 한 원인
 - 한편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SAIC VW 등)가 '22년부터 요르단으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점유율이 급상승
- 요르단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실행계획 2021~2025」 내 친환경 운송수단 활용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전기버스 보급, 충전 인프라 확대 등에 나서고 있음

▣ (전망) 국내 친환경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기자재·소모품·서비스 등의 요르단 진출 활성화 예상

- 친환경차 인프라(전기차 충전소·충전기, 배터리 등 핵심부품) 보급 규모가 전기차 신규 등록 규모 대비 부족하여 향후 관련 품목의 요르단 진출 호조 예상
 - * '23년 6월까지 정부의 허가를 득한 전기차 충전소는 요르단 내 55곳에 불과하며 가정용 전기차 충전계량기 또한 등록된 기기는 2,500기에 불과

- 단, 최근 추진 중인 요르단 내 중국 브랜드 전기차 공장 설립 움직임은 국내 브랜드의 친환경차 및 관련 기자재 수출에 위협 요인
 - * ('23.6월) 요르단 Manaseer와 중국 CH-Auto사 간 요르단 전기차 공장 설립 파트너십 체결

마. MENA 지역 의료 허브국으로서의 위상 재건

▣ (개요) 요르단의 의료 관광객 유치 및 의약품 수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중

- '23년 상반기 요르단 의료 관광객 수는 11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중
 - 요르단 보건부는 의료관광 규모가 '23년에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 코로나19 이전에 요르단은 매년 25만 명 이상의 의료 관광객을 유치해 왔음
 - 요르단 병원들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게 심혈관 수술, 비만·성형 수술, IVF(체외 수정), 항암 치료, 척추·정형 수술, 장기 이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요르단 의료 치료를 위한 'Salamtak' 온라인 플랫폼 개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료책임법' 제정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 중
- '23.1~5월 요르단의 제약·의료용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한 3.78억 달러를 기록, 완전한 수출 회복세 시현
 - * 세계 공급망 회복, 중동 내 가장 큰 제약 시장 중 하나인 알제리에 대한 수출 활동 재개, 요르단 JFDA(식약청)의 제품 등록 프로세스 간소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전망) 한국 기업의 대요르단 의료기기·의약품·기자재 수출 호조 예상

- * '23년 1~8월 한국의 대요르단 의약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이상 증가 중

바. 주변국과의 협력 지속

▣ (개요) 요르단 정부는 인근 걸프 국가들과의 외교적·경제적 협력을 통해 서방국과 아랍 세계 사이에서 중재자 위치를 지속 확보하기 위해 노력

〈2023년 요르단-인근국 간 경제협력 활동〉

대상국	경제협력 활동
對이라크	· (2월) 암만-바그다드 상공회의소 간 양국 무역촉진·경제협력 MOU 체결 · (5월) 이라크의 원유 운송에 관한 MOU 체결, 1일당 원유 1만 배럴 수입 예정
對레바논	· (3월) 요르단으로부터의 전력 공급 협정 논의 (세계은행 자금 조달 조건 충족 시 요르단은 레바논에 100MW 규모의 전력 공급 예정)
對시리아	· (5월) 요르단은 시리아로부터의 마약 밀수 억제를 위해 시리아의 국제사회 복귀 지지 · (7월) 요르단 부총리와 시리아 대통령 간 회담, 양국 안보 안정 논의
對사우디	· (6월) 요르단 왕세자와 사우디 왕가 여성 결혼으로 양국 간 협력 강화 예상 · (7월) 양국 농업부 장관은 수자원 관리, 농업 환경 개선 등 협력 논의

▣ (전망) 시리아 내전 등 안보 불확실성이 높은 중동 지역에서 내수시장이 협소한 요르단으로서는 주변국과 경제 외교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지속 추진

* 역내 전력·원유 공급망 구축 및 시리아 지진 재건 프로젝트 참여로 국내 기업 진출 기회 확대 전망

사. 중동 사태 발발로 불확실성 증가

▣ (개요) 가자지구 하마스 세력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사태 발발

- '23.10.7일 오전에 가자지구의 하마스 세력이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하고 가자지구 경계를 넘어 이스라엘로 침투하면서 이스라엘 민간인 사상자 1,000여 명 발생
- 같은 날, 이스라엘은 즉각 하마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응에 돌입

▣ (요르단 정치 영향) 국민들의 우경화 우려 속 내년 총선 연기 가능성 제기

- 요르단 국왕은 성명을 통해 확전 방지, 민간인 보호 등을 국제 사회에 촉구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 지지
- 요르단 국민 60%는 팔레스타인 출신자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사태는 국민들 사이에 반이스라엘 감정을 촉발하고 있음
- * 10.7부터 암만, 이르비드, 제라쉬, 마안 등 주요 도시에서 이슬람 운동(Islamic Movement) 정파가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지지 연좌시위가 연이어 개최

-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24.11월로 예정된 요르단 의회 총선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 * 요르단 정치권은 우파 정당인 이슬람 운동 등 특정 정파가 선거에서 이득을 얻는 것을 경계

▣ (요르단 경제 영향) 생산자 물가 상승, 전력 연결망 프로젝트 지연, 對팔레스타인 육로 수출 차단으로 인한 요르단 유통망 매출 타격 등 예상

- 미국 정유기업 셰브론이 지중해 동부 타마르 가스전의 운영을 중단 → 동 가스를 공급받아 왔던 요르단 원자재 생산공장들의 연료 조달 차질 예상
-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의 요르단 전력 공급량을 80MW에서 160MW로 증가하는 프로젝트 논의 지연 예상
- * 요르단은 '08년부터 팔레스타인에 20MW 규모 전력 공급, '22년에는 80MW까지 확대
- 팔레스타인은 요르단의 8대 수출시장이나 요-팔 간 국경 폐쇄로 인해 對팔레스타인 수출에 심각한 차질 예상
- * 요르단의 대팔레스타인 수출 규모(US\$ 백만): ('20) 166 → ('21) 203 → ('22) 296

▣ (요르단 진출 기업 영향) 이번 사태로 인한 당장의 비즈니스 영향은 미미

- 단, 이스라엘을 관할로 두고 있는 가전 판매기업 국내 A사는 이스라엘에서 기 판매한 제품 대금의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금년 실적 차질 예상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요르단 왕세자 결혼으로 사우디아와의 협력 강화, 시리아 재건사업 참여 기대
- ※ (경제) '23년 1분기 GDP 성장률 2.8%까지 상승, 재정적자 하락 및 FDI 증가
- ※ (산업) 관광업, 광업 등 요르단 주요 산업별 경기 회복세 뚜렷
- ※ (정책)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3개년('23~'25) 실행계획 추진 등

가. 정치 환경

▣ 요르단 왕세자의 사우디 왕가 여성 결혼으로 양국 간 협력 강화 예상

- '23년 6월, 요르단 왕세자는 사우디의 왕가 여성 라자 알세이프와 결혼
 - 알세이프의 어머니는 사우디 왕가 혈통이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인척 관계로서 이번 요르단 왕가와의 결혼으로 요-사우디 간 관계 강화 예상
 - * 요르단-사우디 간 관계는 '17년 이후 빈 살만 왕세자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협상에 방관 입장을 견지하면서 냉각된 바 있음
- 자원이 부족한 요르단이 걸프 중심국인 사우디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전망
 - 사우디는 對요르단 주요 투자국으로 부동산, 관광, 농업 등에 걸쳐 투자 진행
 - * '21년까지 사우디가 요르단에 투자한 총액은 130억 달러 이상, 2021년 한 해 동안 사우디 투자자들은 요르단 금융 시장에 14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음
 - 또한 사우디의 對요르단 원조(ODA) 규모도 향후 늘어날 수 있음
 - * '18~'21년 사우디는 요르단에 총 2.7억 달러 지원 (아랍 국가 중 UAE, 쿠웨이트에 이은 3위)

▣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로 요르단의 지진 재건사업 참여 가능성 증가

- '23년 5월, 13개 아랍연맹국은 시리아의 아랍연맹 회원 자격 회복 결정
 - 아랍연맹 이사회는 지난 '12년에 시리아의 회원 자격 정지를 결정한 바 있으나, '23년 4월 사우디 외무장관의 시리아 방문 등을 거쳐 회원 자격 회복 결정

- 시리아 대통령은 '23년 2월 강진 이후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리아 지진 복구 사업에 아랍연맹국의 동참을 호소
 - 아랍국의 재건사업 참여 시 인프라 건설, 교통망 복구와 현대화, 발전소 재건 등 분야에서 타국 기업 참가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나. 경제 환경

▣ (개요) 요르단 GDP 성장률은 '21년 평균 1.0%를 기록하고 '22년에 2.5%로 상승, '23년 1분기에는 2.8% 기록

〈2021~2023 요르단 GDP 증가율〉

(단위: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1	2	3	4	1	2	3	4	1	2
GDP 성장률	0.3	3.2	2.7	2.6	2.5	3.0	2.5	2.0	2.8	-

자료: 요르단 통계청

- 글로벌 유가 상승으로 인한 걸프국들의 경기 호조 영향으로 요르단의 수출 증가 및 요르단으로의 인근국 투자도 증가하며 '23년 2.9% 성장 예상(IMF)

▣ (재정) 안정적인 경제 전망에 따른 재정적자 하락 추세

- '23년 1~2월 정부 수입은 1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공공 지출은 2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6.7% 증가
 - '23년 1~5월 요르단 재정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7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러한 증가는 같은 기간 세금 수입이 5.87억 달러 늘어난 데 기인
- 재정 불균형 해결을 위해 요르단 정부는 IMF와 총 12억 9,000만 달러 규모의 확대 신용 공여(Extended Fund Facility)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23년 6월, IMF 집행이사회는 요르단 EEF 프로그램에 대한 6차 검토를 완료하고 요르단에 약 3,200만 달러를 공여
 - * IMF의 동 프로그램은 '2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공여액은 173억 5,000만 달러에 달함

▣ (금융·통화)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제 위축 우려 속 외화자금 유치 지속

- '23년 1~7월 요르단 중앙은행은 총 4차례 0.25%p씩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
 - 가계소득의 50% 이상이 가계대출 상환에 사용되고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및 경기 둔화 우려 상존
 - * 요르단 기준금리: ('23.1월) 6.5% → (2월) 6.75% → (3월) 7.0% → (5월) 7.25% → (7월) 7.5%
- '23년 4월 요르단 재무부·중앙은행은 12.5억 달러 규모로 고정금리 7.5%의 유로본드 ('29년 1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5년 만기 채권)를 발행
 - * 미국, 영국, 유럽, GCC 국가의 주요 펀드를 포함하여 230개 이상의 기관이 청약에 참여, 총 청약 규모는 당초 목표액 7.5억 달러의 6배에 달하는 47억 달러에 달했음
- '23년 5월 Fitch Ratings는 요르단 장기 외화발행자 기본등급(IDR)을 안정적인 전망과 함께 'BB-'로 유지하기로 함
 - * 한편, '23년 상반기 요르단 국적 해외 거주자의 송금액은 16억 8,38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

▣ (FDI) '23년 1분기 요르단 내·외국인 투자를 합친 총 투자 규모는 4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

- 요르단으로의 FDI 규모는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하락세, '22년에 반등
 - * 요르단 FDI 유입액(Flow): ('17) 20.3억\$ → ('19) 7.3억\$ → ('21) 6.2억\$ → ('22) 11.3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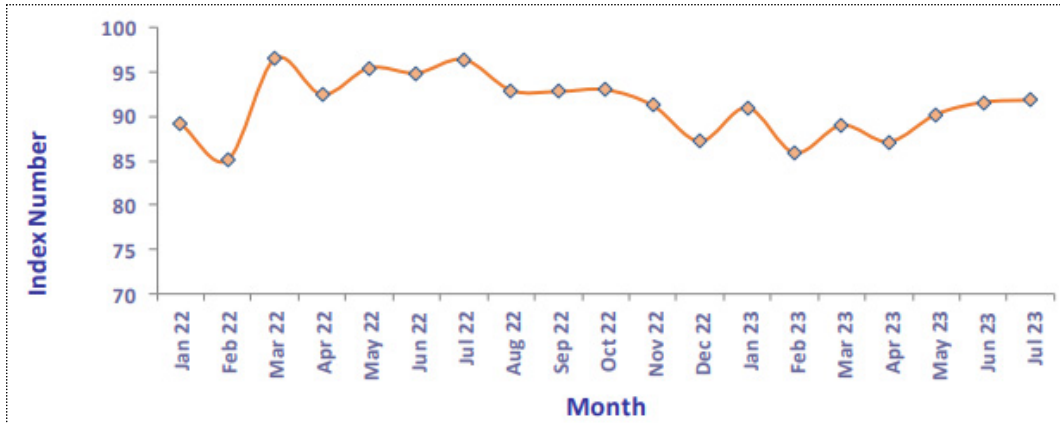
▣ (물가) '23년 1~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5% 상승, '23년 1~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7% 하락

-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는 연료·조명(10.48%), 유제품·계란(7.03%), 문화·엔터테인먼트(6.32%), 가구·카펫·침대보(4.43%) 가격 상승이 영향을 끼침
- 제조업 가격(Δ5.73%), 전기요금(Δ5.4%) 하락은 생산자 물가 하락에 기여
- 글로벌 식량가격 및 원유가격 압력 완화, 요르단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23년 2분기 이후 물가 상승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

▣ (생산) '23년 1~7월 산업생산량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9% 하락한 91.85 기록

- 동 하락은 주로 제조업과 전력 부문의 생산량이 각 4.25%, 0.43% 감소한 것에 기인

〈2022~2023 요르단 월별 산업 생산량 지수 추이〉



▣ (실업률) '23년 1분기 실업률은 21.9%로 전년 동기 대비 0.9%p 감소

- 15~24세 연령대의 실업률은 46.1%(남성 42.1%, 여성 64.1%)이며,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의 남성 실업률은 26.7%, 여성 실업률은 79.5%

다. 산업 환경

▣ 요르단 산업 특성

- '23년 1분기 GDP 내 서비스산업 비중은 약 70%로 상품산업 비중 약 30% 대비 약 2배 - 요르단은 페트라, 기독교 성지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관광·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발달
- '23년 1분기 GDP 성장(2.8%, '22년 4분기 대비 2.0% 성장)을 견인한 분야로는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등이 꼽힘

〈2023년 1분기 기준 요르단 산업별 GDP 비중〉

연	구분	분야	GDP 비중(%)	GDP 성장률(%p)
1	서비스	재무·보험·비즈니스 서비스업	19.7	2.4
2		정부 서비스 생산	13.4	1.3
3		도소매·관광업	10.2	3.0
4		운수·창고·통신업	9.1	4.8
5		사회·개인 서비스	8.2	2.1
6	상품	일반 제조업	16.9	3.4
7		농업	5.3	7.4
8		광업	2.9	3.5
9		건설업	2.4	5.9
10		전력·물산업	1.4	2.8

자료: 요르단 통계청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 각 산업별 주요 동향

- (관광업) 요르단으로의 해외 관광 증가세 뚜렷
 - '23년 1~4월 요르단 관광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22.1억 달러이며, 관광객 수는 87.2% 증가한 190만 명
 - 페트라관광개발청에 따르면 2023년 1~5월 페트라 방문객 수는 61만 명으로, 현 추세 유지 시 연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50만 명 방문객 달성 기대
- (제조업) 광업을 제외한 전력 및 제조업의 생산량 감소
 - 2023년 1~7월 일반 산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9% 감소하며, 91.85로 하락하였음
 - 채굴 생산량지수는 2.6% 증가한 반면 전체 생산 비중의 86%를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량이 4.54% 감소한 것이 전체 생산량 지수 하락에 가장 크게 작용함
 - '23년 1~8월 요르단 탄산칼륨 및 인산염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4%, 11.6% 상승하였으며, 탄산칼슘과 인산염 모두 3년째 생산량 증가 추세
 - 국제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원유를 원자재로 활용하는 석유제품 산업의 생산량은 '22년까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23년에 다소 반등
 - '22년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전력 생산량은 '23년 1~8월 기간에 전년 동기 대비 53% 하락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

〈2019~2023 제조업 분야별 생산량 추이 (괄호는 전년 동기 대비 %)〉

연도	제조업(천 톤)				광업(천 톤)		전력 (백만 KW/h)
	석유제품	벽돌	화학물질	비료	탄산칼륨	인산염	
2019	2,274(2.8)	282(△52.2)	1,292(△6.1)	747(△15.2)	2,486(2.1)	9,088(13.8)	973(△57.1)
2020	1,855(△18.4)	292(3.8)	1,391(7.7)	929(24.3)	2,455(△1.3)	8,616(△5.2)	1,030(5.9)
2021	1,765(△4.8)	216(△26.0)	1,562(12.2)	1,055(13.5)	2,562(4.3)	9,840(14.2)	1,321(28.2)
2022	1,625(△7.9)	190(△11.9)	1,584(1.4)	952(△9.7)	2,684(4.7)	10,957(11.3)	1,008(△13.2)
2023	1,060(0.8)	0	923(△1.4)	600(8.9)	1,881(21.4)	7,329(11.6)	324(△53.2)

주: 2023년도는 1~8월 누계치 기준
자료: 요르단 중앙은행

- (광업) 2023년 5월, 요르단 광업은 GDP에 약 2.2%(9억 8,700만 달러) 기여
 - 광업 분야의 노동 인구는 요르단 노동력의 0.6%를 차지하는 9,000명 이상
 - 광업 분야 수출 규모는 연간 약 14억 달러이며, 경제 현대화 비전에 따라 최대 47억 9,000만 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18~2022 요르단 광산업 생산지수(2010년=100)〉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원유 및 천연가스 추출	47.3	48.6	75.6	94.4	76.5
돌, 모래, 점토 등 채굴	82.4	103.7	104.4	133.4	123.4
화학 및 비료 광물 채굴	125.2	131.2	132.4	139.5	148.0
합계	121.8	128.4	130.1	138.6	144.1

자료: 요르단 중앙은행

- (건설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축 허가 규모 감소 등 하락세
 - 요르단 내 건축 허가 건수는 '19~'21년 사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2년 전년 대비 3.4% 하락함

〈2019~2022 요르단 건축 허가 건수〉

연도	주거용	비주거용	합계
2019	20,147	1,933	22,080
2020	17,929	1,271	19,200
2021	24,982	1,738	26,720
2022	23,898	1,892	25,790

자료: 요르단 중앙은행

- 요르단 내 건설 프로젝트 규모 또한 '22년에 전년 대비 42% 하락

〈2019~2022 요르단 건설 프로젝트 규모〉

(단위: US\$ 백만)

연도	빌딩	도로	수자원	전자/기기	기타	합계
2019	1,034.20	289.8	44.4	68.1	25.8	1,462.30
2020	749.2	65.1	88.4	48.2	224	1,174.90
2021	963.1	68.1	108.6	141.8	165.1	1,446.80
2022	537.5	133.7	13.7	89.8	61.5	836.20

자료: 요르단 건설기업협회(JCCA)

- (소비재) 소매시장의 판매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하다 '22년부터 반등했고 '23년에는 전년 대비 4.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 소규모 지역 식료품점이 식품 시장에서 가장 큰 판매 점유율을 차지하나, Cozmo, Carrefour 등 현대식 프리미엄 하이퍼마켓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
 - 의류·신발 등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Zara, H&M 등 국제 브랜드 매장이 있으나 이 분야에서도 소규모 독립 소매업체가 판매시장의 주류 형성
 - 약국, 안경점, 건강·미용 관련해서도 소규모 소매업체의 판매 비중이 높으나, 이외에도 생활소비재에 대해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 아울렛 매장 존재
 - * 현재 가정용 소비재의 유통은 소규모 잡화점에서 대규모 종합매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약 70%가 소규모 잡화점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요르단 소매 시장 판매 규모〉

(단위: US\$ 백만)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판매액	16,227	15,532	15,319	15,923	16,635

주: 2023년은 예상치

자료: Passport

-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 온라인 스토어 수 증가, 인플루언서 등장 및 소셜미디어 마케팅 중요성이 커지며 전자상거래 분야 급성장
 - '23년 4월, 「요르단 국가 전자상거래 전략」 정책 발표 이후 요르단 정부는 소비자 편의 및 국내외 B2C 거래 증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추진

〈요르단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명	개요
Opensooq	'12년 오픈한 종합 아이템 이커머스 웹사이트로, 아랍지역 총 19개국에 지사를 두고 총 6,000만 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
Talabat	'04년 쿠웨이트에서 설립되어 요르단 등으로 진출하였으며 현재 중동 최대 온라인 음식 배달 플랫폼으로 성장

▣ 요르단 세금제도 및 진출 여건

- 외국 기업이 요르단 법인 설립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에는 ① 법인세, ② 판매세, ③ 관세, ④ 근로자 과세 등이 있음
 - 요르단 소득세와 판매세는 2014년 개정된 소득세법(Income Tax Law No.34)과 2009년 제정된 일반판매세법(General Sales Tax Law No.29)에 의해 규정
 - 요르단 재무부 조직인 소득 및 판매세 부서(ISTD, Income and Sales Tax Department)에서 소득세와 판매세 징수를 관할

- 요르단에 등록된 외국 법인은 모두 거주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요르단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이 부과됨
 - 요르단의 법인소득세율은 10%에서 35%까지 다양한데 평균적으로 20% 수준
 - 과세소득의 범위는 요르단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당 소득을 통한 배당이익을 모두 포함
 - * 한 해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손실액은 최대 5년까지 이월되고 다음 해에 발생한 영업 이익과 상계한 후 남은 이익이 과세소득으로 정해짐

- 요르단 원천징수세는 양도소득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면세이나, 이익(interest), 로열티, 기술 서비스, 관리비 등에는 거주·비거주자에 각 10% 적용
 - * 원천지 과세 원칙에 따라 요르단 원천지로부터 거주자·비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 기타 법인세로는 부동산세(15%, 연간 임대료 산정가격 기준), 고용주 사회보장세(14.25%, 피고용인의 월 급여 기준), 인지세(0.3~0.6%, 서명된 계약서 가치 기준) 등이 있음

〈요르단 및 인근국 세금제도 비교〉

국가명	법인세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VAT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요르단	10~35%	사업 분야별 차등, 평균 20% 수준	5~30%	-	0~10%	-	16%	일반판매세 (General Sales Tax)로 지칭됨
레바논	17.0%	-	2~25%	레바논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0~10%	비거주 기업은 상품 결제 시 2.25%, 서비스 결제 시 7.5%	11%	-
시리아	28.0%	사업 분야별 차등 (10~28%)	0~22%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 세율 적용	0~7.5%	비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7.5%	-	시리아는 VAT 비적용 국가

자료: 각국 국세청 홈페이지 등

- '19년 1월, 요르단 정부는 국민기여세(National Contribution Tax)라는 신규 세제를 도입하고 '21년 5월부터 신규 지침을 통해 시행에 돌입

〈요르단 국민기여세 주요 내용〉

세금 부과 대상 거래	대금을 받는 당사자	국민기여세 세율
1. 자연인 및 법인이 지급한 현금, 현물 및 경품 2. 금융기업이 지급한 예금의 이익 (예금이자, 수수료 등)	거주 법인	· 기초 광업 부문 7% · 금융, 금융중개, 금융리스 부문 4% · 은행 및 전기 발전 부문 3% · 통신 및 보험 부문 2% · 기타 모든 부문 1%
	비거주 법인	1% (단, 비거주자의 법인 활동이 위 열거된 부문 및 소득세법에 포함된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주/비거주 자연인	200,000요르단디나르를 초과하는 요르단 디나르(JOD) 마다 1%씩 부과
3. 거주 법인과 거주 자연인의 지불 건	비거주 법인	1% (단, 비거주자의 법인 활동이 위 열거된 부문 및 소득세법에 포함된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 자연인	200,000요르단디나르를 초과하는 요르단 디나르(JOD) 마다 1%씩 부과

자료: EY컨설팅

- 참고로 요르단과 한국은 2005년 3월부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 조약을 발효시킨 바 있음
 - 동 협약 적용 조세로는 한국의 경우 ① 소득세, ② 법인세, ③ 농촌개발특별세, ④ 주민세 등이며, 요르단의 경우 ① 소득세, ② 사회복지세, ③ 분배세 등임

- 요르단에서의 법인 설립은 「2022년 투자환경법」에서 파생된 ‘투자환경 규제 규정 7호’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 일반 법인 설립 절차는 ① 경제활동의 법적 형태 등록, ② 기타 사업 관련 사항 등록, ③ 부지 선정 및 환경 승인 획득, ④ 계획 규제 승인 및 건축 허가 획득, ⑤ 부문별 라이선스 취득, ⑥ 직업 면허 취득 등
 - 외국인이 요르단인과 함께 합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사전에 요르단 내무부, 공공사업주택부, 중앙은행, 국가사이버보안센터 등의 승인이 필수적
 - 법적 형태 등록 후에도 요르단 상공회의소, 요르단 산업회의소, 사회보장기관(SSC), 소득세 및 판매세 부처(ISTD)에 사업장을 등록해야 함

〈요르단·레바논·시리아 진출 여건〉

국가명	법인 설립 요건 (투자 비용)	최소 자본금 (천 달러)		현지인 고용 의무		기타 참고사항
		금액	적용 분야	적용 여부 (명칭)	분야	
요르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비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① 비요르단 기업 내 요르단인이 자본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 ② 회사는 요르단 국가 외부에 법인화되고 등록됨 ③ 회사는 공개주식회사가 아님 ④ 관계 법령에 대한 소유권 또는 참여에 제한이 없음 * 단, 외국인 지분을 일정 비율로 한정하는 분야는 제외	신고 자본금은 500,000 JOD 이상 / 주식 자본금은 100,000 JOD 또는 공시 자본금의 20% 중 더 큰 것	공개 주식 회사	최소 250명 이상의 요르단인 고용 시 소득세 면제되거나 30% 이상 감면		* 비요르단인 투자자에게 50% 미만으로 참여가 허용되는 경제 활동: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컨설팅, 건설 계약 및 관련 서비스, 건축 및 건설 목적의 토양 검사 및 화학물질 검사와 관련된 기술 검사 서비스, 고용 및 노동 제공, 은행 및 금융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중개 및 금융 중개 서비스를 제외한 중개, 소매업 및 도매업, 운송 및 통관 서비스, 화물 운송, 호텔 및 모텔을 제외한 케이터링 서비스, 카페테리아 및 카페 등
	최소 신고 자본금과 주식 자본금은 50,000 JOD 이상	개인 주식 회사				
레바논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레바논 회사는 외국인 소유권에 제한이 없음	500만 레바논 파운드 3,000만 레바논 파운드	유한 책임 회사 합작 회사	N/A		
시리아	외국인 소유권 제한이 없음(외국인이 100% 소유 가능)	500만 시리아 파운드 1,000만 시리아 파운드	둘 이상 파트너가 설립한 유한 책임 회사 단일이 설립한 유한 책임 회사			

자료: Invest Jordan 등 웹사이트

라. 정책·규제 환경

▣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3개년('23~'25) 실행 프로그램 추진

- (개요) '22년 6월, 요르단 정부는 향후 10년간 경제·산업 개발, 고용 창출, 중산층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경제 현대화 비전」 발표
 - 왕실 주도로 수개월 동안 열린 국가 경제 워크숍의 결과로, 공공·민간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회, 시민사회 대표 등 500명 이상이 참여
- (추진 배경) 요르단은 '00년대에는 연평균 GDP 성장률이 6.5%에 달했으나 '11년 이후 13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면서 '10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1% 수준으로 하락
 - 요르단의 재정적자는 '12년에 GDP의 8.1% 수준까지 도달한 후, 조세 제도 개혁 등 다양한 금융 개혁을 통해 '18년에 GDP의 2.4%까지 감소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년에는 GDP의 7%까지 상승
 - * 공공 재정 및 보건, 교육, 교통, 물과 같은 기본 정부 서비스에 심각한 균열 발생
 - 정부 부채는 '11년부터 '22년까지 GDP의 평균 74.7%를 기록했으며 '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긴급 지출로 인해 GDP의 84.5%에 달함.
 - * '21년 정부 부채는 코로나19 대응 사업 지속, 경기 위축에 따른 조세 수입 하락, 요르단 전력청 (NEPCO)의 대출 할부금 상환 등으로 인해 88.6%까지 증가

〈요르단 재정적자 규모〉

(단위: US\$ 백만,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적자 규모	1,028	1,495	3,082	2,444	1,197
GDP 대비 비중	2.4	3.3	7.0	5.3	5.2

자료: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웹사이트

〈요르단 정부 부채 (사회보장투자자금 제외)〉

(단위: US\$ 백만,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채 규모	32,320	33,840	37,428	40,625	41,186
GDP 대비 비중	75.1	75.0	84.5	88.6	84.2

자료: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웹사이트

- (추진 개요) '22년 12월 요르단 내각은 경제 현대화 비전의 '23~'25년(3개년) 실행 프로그램을 승인
 - '23~'25년 3년간 연도별 구체적인 실행계획, 자원 조달 방안, 성과 지표 및 성과 측정을 위한 전자 시스템 구현 등의 내용이 포함
 - * 경제 현대화 비전 전체 380개 세부 프로젝트 중 183개가 이번 3개년 프로젝트에 포함됐으며 각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총 46건의 기존 법률 검토, 수정 및 신규 법률 입안 등 추진
- (추진 목표) '23~'25년 전반적인 경제 목표는 다음과 같음

〈2023~2025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경제 발전 계획〉

연	경제 발전 계획
1	국내외 민간 직접 투자 수준 유지 및 증가
2	향후 3년 동안 자본 지출 수준 유지
3	요르단 중앙은행의 재정 및 통화 안정성과 안정된 외환보유고 수준 유지
4	국가의 공공 부채 및 적자를 줄이고 금융 개혁을 계속 시행
5	향후 몇 년간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 달성
6	공급망,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성장을 측면에서 세계 경제 여건 개선
7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리아 난민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

〈2023~2025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주요 경제지표별 목표〉

지표	2022	2023	2024	2025
실질 GDP 성장률(%)	2.7	2.7	2.7	3.0
물가상승률(%) (CPI)	4.4	3.8	2.9	2.5
1인당 GDP(달러)	4,747	5,055	5,337	5,624
재정적자(GDP 대비 %)	-5.1	-5.2	-4.7	-4.4
정부 부채(사회보장기금 제외, GDP 대비 %)	87.9	86.6	84.8	82.8
수출액(FOB)(백만 달러)	12,011	12,622	13,192	13,718
수입액(FOB)(백만 달러)	24,065	24,353	24,792	25,312
경상수지 (대외 원조 제외, GDP 대비 %)	-10.8	-8.8	-7.3	-5.6
순 외국인 직접투자 (백만 달러)	849	1,106	1,271	1,542

주: 2023~2025년은 목표치
 자료: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웹사이트

- (예산 조달) 3년간 약 32억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
 - 총 예산 중 약 24.5%인 7억 9,800만 달러는 대외 원조로 충당하며, 8개 중점 추진 분야 중 '지속 가능한 자원' 분야에 가장 많은 9억 7,000만 달러를 배정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3개년 실행계획 예산 조달 계획〉

(단위: US\$ 백만)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일반 예산	정부 부처 예산	501.41	564.97	635.59	1,701.98
	정부 유관기관, 자기자금 조달	211.86	254.24	282.49	748.59
대외 원조		233.05	282.49	282.49	798.02
총계		946.33	1,101.69	1,200.56	3,248.59

자료: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웹사이트

- (세부계획)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DB 구축 및 전산화가 추진되며, 농업단지 조성, 국제 전시장 설치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부문 개발을 포함한 청정에너지원의 탐사와 활용, 인근국과의 에너지 연결 등이 주로 다루어짐
 - 아카바 담수화 및 운송(42억 달러), 국가 철도 네트워크 연결(29억 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다수 포함

〈2023~2025년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주요 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	완료 시기	관계기관
농업·식품	식량 안보를 위한 국가 DB 구축	2025	농림부
	Jordan Valley 남부농업단지 조성	2025	
	빛물 수확 기술 사용 확대 및 Badia 목초지 복구	2025	
	Al-Qatrana(50만 톤), Al-Ghabawi(10만 톤) 곡물 창고 건설 및 Juwaida Complex 냉장창고(5,000톤) 확장	2025	
	Tannoor댐, Mujib댐과 연계한 현대적 농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	2025	
쿨드체인 및 농업 분야에서 태양광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2025		
운송·물류	항구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곡물 하역 시스템 설치	2024	아카바 개발공사
	퀀알리아 공항에 항공화물 센터 건립을 위한 F/S 추진	2024	요르단 공항회사
	Hijaz 철도 복구를 위한 F/S 추진	2024	헤자즈 철도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 1단계(암만-아카바 구간) 기반시설 구축	2025	교통부

구분	프로젝트	완료 시기	관계기관
	Mafraq 지역에 물류 서비스센터 설립	2025	Al Mafraq 개발회사
	Sultani 지역에 밀수 방지 및 통관 센터 건립	2025	요르단 세관
의료	약국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요르단 보건 분야 전산 시스템 구축	2025	보건부
	생명공학 의약품, 바이오시밀러의 생산 및 계약 촉진	2025	산업통상부
무역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을 위한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 설치	2023	산업통상부
	Marj Al-Hamam 지역에 국제 전자상 개발	2025	
	이라크 경제도시 사업 착수	2024	
ICT	5G 통신 패키지 도입	2025	디지털 경제부
에너지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생산사업 경제성 검토	2024	에너지광물자원부
	스마트그리드로의 전환	2025	
	Hamza 유전 개발	2025	
	Al-Risha 가스전 개발	2025	
	석유, 가스, 오일 세일 탐사사업 투자 기회 관련 DB 구축	2023	JREEEF
	연 3만 건 이상의 가정용 태양 발전 시스템 설치 및 33개 지자체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2025	
	아카바항에 LNG 육상 재기화 장치 설치	2025	아카바 개발공사
	액화석유가스 저장사업	2025	요르단 전력회사
	요르단-이라크 전력망 연계사업	2024	
	요르단-이집트 연결 전력용량 증강(1100MW까지)	2024	
자르카 정유소 4차 확장	지속	JPRC	
물	물 손실률을 연간 2%까지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행	2025	수자원부
	수원과 직결된 급수 네트워크 확장	2025	
	아카바 담수화 및 암만으로의 수송사업 착수	2023	
	수처리장 주변에 농업 프로젝트 구현	2025	
폐기물 관리	고형 폐기물 관리 및 폐기처에서의 분류 작업 구현	2025	암만시
	농업용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2023	환경부
도시 개발	BRT 버스 암만-자르카 구간 준공	2023	암만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현	2025	
	국가 대중교통 전산 모델 'VISUM' 개발	2023	
	암만 BRT 버스 2단계 구현	2025	

자료: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웹사이트

- (향후 전망) 우리나라의 현지 사업 기회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이 분석됨
 - 요르단-이라크, 요르단-사우디 전력망 연결 및 요르단-이집트 전력 연결 용량 증강이 가시화됨에 따라 전력기자재 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산업 분야별 국가 DB 구축, 보안 시스템 확대, 5G 도입,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현 등 요르단 전반의 디지털화 추진에 따라 국내 ICT 기업의 기회도 증가
 - 의약 부문에서는 국내 바이오 의약사와 요르단 제약사 간 기술 제휴, OEM/ODM 등 파트너십 추진 유망
 - 물 분야에서 본격적인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내 수처리, 폐기물처리, 환경관리 및 해수 담수화 기업의 진출 기대

▣ 주요 산업 육성정책

- (일반) 2020~2025 요르단 국가 비전(Jordan National Vision)

목표	- 지속가능하고 실적 중심적이고 법치주의적인 정치·경제 환경 조성을 통해 '25년까지 연 7.5%의 GDP 성장률 달성 - MENA·GCC 국가와의 무역·투자 협력 강화로 수출주도형 강소국가 건설
담당 부처	- 요르단 범 정부 부처
주요 내용	- (건설) 레반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참여 지원 - (운송)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육로 인프라 현대화 및 콜드체인 산업 육성 - (관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 유치, 서비스업 인력 교육·훈련 지원 - (제약) 임상실험 서비스, 바이오 분야 연구, 제품 개발 등에 투자

- (에너지) 2020~2030 국가 에너지 분야 전략(Jordan's National Energy Strategy)

목표	- '30년까지 에너지 9% 절감, '25년까지 물 분야 에너지 효율 15% 개선 -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을 '20년 11%에서 '30년까지 14%로 상향
담당 부처	-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주요 내용	- (프로젝트) 요르단 정유 공장 확장, 오일 셰일 탐사 및 동 분야 투자 유치 - (기타) 다양한 발전원(천연가스, 유전, 유혈암 등) 개발, 전기 저장 장치(ESS) 도입, 에너지 그리드 안정화 등

- (ICT) 2021~2025 국가 디지털 전환 전략(The 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목표	- 민간·정부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발전
담당 부처	- 요르단 디지털 경제 및 창업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Entrepreneurship)
주요 내용	- (인프라) 5G, IOT, AI,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전자결제, 재난복구 시스템, API, 디지털 신분증, 광대역 통신망, 정부 보안 등 인프라 구축 - (디지털 정부) 통합 전자정부 포털 'Sanad'를 통해 편리한 행정과 양방향 서비스 기능 실현, 공공 데이터 공유를 위한 개방형 정부 데이터 포털 구축

• (농업) 2021~2025 녹색성장 행동 계획(Green Growth National Action Plan)

목표	- 고용 촉진, 농촌 개발, 식량안보를 아우르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 - 자연자원 강화, 사회 발전과 빈곤 감소,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등에 기여
담당부처	- 요르단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요르단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주요내용	- (개요) 농업 녹색성장을 위한 14개 우선순위 조치 추진, 5년간 총 1.93억 달러 투입 - (내용) 농업 분야에 현대 기술 사용 촉진 및 농업 디지털화 추진, 농업 가치사슬 프로세스 개선 및 물류체인 개발, 경관 복원 및 자원 효율화 활동 추진, 농산물 업자 및 농촌 지역사회에 재정적 지원 기회 확대, 농업 산업 수출망 개발, 전략적 작물에 집중된 생산성 확대 등

▣ ESG 관련 동향

- '22년 12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연합(EU), 녹색기후기금(GCF)은 요르단의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요르단에서 '녹색 경제 금융 프로그램(GEFF)'을 개시
 - 동 프로그램에 따라 EBRD, EU, GCF는 은행, 소액 금융 기관(빈곤층을 위한 마이크로 금융 기관) 및 리스 회사와 같은 지역 금융 기관에 총 4,000만 달러의 자금이 제공되며, 민간 부문에 대출 실시
- '23년 3월 요르단 쿠웨이트 은행(Jordan Kuwait Bank)은 국제금융공사(IFC)의 지원을 받아 5년간 5,000만 달러 규모로 요르단 최초의 녹색 채권(Green Bond, ESG 채권) 발행
 - 동 채권은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청정 에너지 확산 관련 투자를 유도하여 국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행됨
 - * ESG 채권: ESG 채권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기준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펀드에서 발행하는 채무 담보
 - ** Jordan Kuwait Bank는 2021년부터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하는 은행이며, 전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소를 자체 설립한 바 있음
 - ***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내용에는 요르단이 '글로벌 환경 성과 지수' 상위 20%, '글로벌 지속가능성 경쟁력 지수' 상위 40% 안에 드는 것 등의 목표들이 포함됨

- 아래는 ESG 관련 외국 정부 또는 기업의 '23년 대요르단 주요 활동 내역임

〈요르단과 제3국 간 ESG 관련 주요 활동 내역〉

분야	관련국	시기	활동 내역
교육	독일	'23.6월	· 독일개발은행(KfW)은 공립학교 신축 및 확장, 교내 가구 및 실험실 설치 등 지원을 위해 요르단 기획부와 5,000만 유로 규모의 연성차관 계약 체결
전력	일본	'23.9월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요르단 전력 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 사업에 650만 달러 무상 원조 발표
물	미국	'23.8월	· 미국국제개발청(USAID)은 3,900만 달러 규모로 요르단 수자원 인프라 개선을 위해 △물 및 위생 인프라의 현대화, △수자원 관리 관련 기술 개발 촉진, △최신 수자원 시스템의 지속 관리 등 추진
	세계은행	'23.7월	· 물 부문 효율성 사업 지원을 위한 2.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 체결 · 2억 달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양허성 차관, 0.5억 달러는 글로벌 양허성 금융기구(GCFF) 무상 원조로 제공

자료: 현지 언론 보도 종합

- ※ 소비자 구매 패턴이 점차 서구화되고 있는 시장으로, 인근국 중개 무역에 강점 보유
- ※ 단, 일반소비자의 낮은 구매력과 제조업 미발달로 인한 산업 인프라 부족은 약점
- ※ 편직물·의류, 비료 및 그 원자재(인산·조칼륨) 등이 주요 수출 품목
- ※ 비산유국으로서 원유 품목이 수입 비중 1위, 최근 중국으로부터 친환경차 수입 폭증

가. 시장 특성

▣ 중개 무역 거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시장

- 요르단은 현 국왕의 통치 아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홍해를 접한 아카바 항을 기점으로 시리아-이라크-팔레스타인 등을 잇는 서부 중동 지역 물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
 - 아카바-수에즈운하-베이루트의 해상 루트는 약 한 달이 소모되나 아카바-시리아-레바논 육로 루트는 2~3일 소요되어 운송비용 약 2~3배 절감 가능
 - 또한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및 이라크 움카사르 항구의 물동량 적체 심화가 이어지며 요르단 아카바 항구는 인접국에도 중요한 물류 허브로 떠오름
 - 요르단은 중개 무역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유구역(Free Zones)을 40개 이상 운영하고 있음
 - * 자유구역에서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여러 인센티브 제공

〈요르단의 지정학적 위치〉



자료: KOTRA 암만 무역관

- 인접국 및 북미·EU 등과 체결한 무역 협약을 기반으로 요르단을 통한 제3국 진출이 가능하며, 풍부한 외국인 노동력을 보유
 - 요르단은 아랍연맹국 21개국과 '97년에 FTA를 체결했고, 이후 미국, 캐나다, 이라크,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와 FTA 체결
 - 요르단 내에는 최소 1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대부분 중동 출신)가 거주, 요르단 기업은 자사 근로자의 70%까지 외국인 고용 가능
- 최근 이라크·레바논 등 인접 국가들의 재건 움직임에 따라 해당국과의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 및 무역·투자·제조 협력 등 추진
 - 이라크 바스라항의 석유 자원 활용을 위해 이라크 바스라항-요르단 아카바항-이집트를 잇는 송유관을 건설하는 등 3국 간 경제협력 증진
 - 요르단·이집트·시리아·레바논 4개국 간 파이프라인 연결을 통한 이집트산 천연가스의 레바논 공급 프로젝트 등 경제협력 추진

<요르단-이집트-이라크 협력 프로젝트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송유관 (Oil pipeline)	· 바스라(원유)-아카바-이집트(정제) 연결 송유관 건설 (+1,700Km, 약 180억 달러 규모) · 1단계 이라크-요르단, 2단계 요르단-이집트 송유관 건설 순으로 진행 · 완공 시 요르단-이집트는 브렌트유 가격보다 배럴당 16달러 낮은 이라크산 원유 이용 가능 · 이집트 송유 시 이집트 정제소 활용 가능해 이라크측 원유 정제 비용도 절감 · 완공 시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출 루트 대체 가능
국제 물류 허브 (Al-Mafraq Hub)	· 요르단 마프라크(Mafraq) 공업도시를 허브로 사우디-시리아-이라크 간 육로 건설 · 이라크, 시리아 재건 시 프로젝트 진출 관문으로 활용
공동산업단지 (Karamah-Trebil)	· 이라크 재건사업 필요 물품 조달을 위해 이라크 접경에 공동 자유무역 산업단지(약 2km) 조성 · 상대국 수출 시 무관세 적용, 화물트럭 이동 시 'Door-to-Door' 기반 운송 가능
전력망 연결	· (1단계) 요르단 암만-이라크 바그다드 전력망 연계 (150MW / 7.2억 달러) · (2단계) 아프리카 및 유럽 내 주요 전력 공급국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이집트가 참여할 경우 960MW 규모로 확장
자유무역	· 對이라크 수출 요르단산 393개 품목 무관세 (플라스틱, 직물, 철강 등) · 요르단 아카바항을 거쳐 이라크로 수출되는 품목에 항구이용료 75% 할인
기타	· 요르단 기업에 이라크 기업과 동등 자격으로 현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격 부여 · 요르단 통신규제위원회는 이라크 내 광통신 네트워크 설치 추진

자료: Meed Project 및 현지 언론 보도 종합

- 요르단은 시리아를 통한 레바논으로의 전력 공급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美 정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즉각 전력 공급 예정
 - '22년 1월, 요르단·레바논·시리아는 세계은행으로부터 2억 달러 규모의 對레바논 자금 조달 협회가 완료되는 대로 요르단 전력을 레바논에 공급하기로 최초 합의
 - * 요르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레바논에 약 150MWh, 나머지 시간에는 250MWh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레바논 전력 수요의 7%에 해당
 - '23년 3월, 요르단과 레바논 외무장관은 전력 공급 협정을 재논의했고, 세계은행이 자금 조달을 승인하는 즉시 요르단은 레바논에 100MW 전력 제공을 약속
- '23년 5월, 시리아의 아랍연맹 회원 자격 회복에 따라 중계무역지로서의 요르단 입지도 확대될 전망
 - 레바논의 IMF 지원이 현실화되고 시리아 지진 재건사업에 주변국 참여가 허용되면 요르단은 시리아로 수송되는 물류 채널로서 기능 예상
 - * '22년 4월 레바논과 IMF는 레바논 경제 회복을 위해 30억 달러의 대출에 대한 조건부 합의에 도달했지만, 레바논은 46개월 자금 조달 프로그램 시작을 위한 조건 미충족

▣ 단, 요르단은 소규모 시장으로 인근국 대비 구매력은 낮은 편

- 요르단 인구는 '23년 5월 통계청 자료 기준 1,138만 명이며, 시리아 사태 등으로 유입된 난민 약 150만 명을 제외하면 구매력 보유 인구는 800만 명대로 추산
 - * 암만(42.0%), 이르비드(18.5%), 자르카(14.3%) 등 3대 도시에 인구가 집중, 전국적 규모의 유통망 발달이 미흡
- 1인당 GDP는 4,210달러 수준으로 구매력이 높지 않으며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심해 계층 간 소비 수준과 성향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
 - 요르단인의 70% 이상은 월 급여가 700달러 이하이며, 절반 가까이(48.7%)는 350달러 이하로 극빈 소득층이 다수 분포
 - * 월 96달러를 벌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의 비중도 15.7%에 달함. 즉,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심해 계층 간 소비 수준과 성향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시장임
 - 대다수 지출은 식료품, 유틸리티, 집 렌트 비용 등에 생활 필수 분야에 집중되며, 소비에서 품질보다는 가격을 우선시하는 가격지향형 소비 행태를 보임
 - * 단, 최근 국민소득이 5,000달러에 근접하면서 기존의 의식주 위주의 소비 행태에서 벗어나 자동차·가전 구입, 여가·의료 등으로 소비 행태가 전환되고 있음
 - 요르단 가구의 절반가량인 51.4%는 연간 약 1.4만 달러 이하를 지출하고 있으며, 연간 2.8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 비중은 12.5%에 불과

- 반면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소득층은 대부분 수도 암만에 거주, 중산층은 나머지 20% 정도로 그 층이 얇은 시장구조를 띠
-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성 무역적자국
 - 농산품·의약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미국, EU, 아시아 등에서 수입된 공산품들이 치열하게 경쟁 중

나. 교역

▣ 요르단 수출입 동향

- (개요) '23년 1~6월 기간 對세계 요르단 수입은 126.7억 달러, 수출은 63.8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2.9억 달러 적자 기록
 - * '23.1~6월 요르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 수입은 4.8% 감소

〈2019~2023 요르단 수출입 규모 및 무역수지〉

(단위: US\$ 백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6월)
수출액 (FOB 기준)	7,056	7,124	9,383	11,414	6,375
수입액 (CIF 기준)	19,224	17,059	21,613	27,366	12,666
무역수지	-12,168	-9,935	-12,230	-15,952	-6,291

자료: 요르단 통계청

- (수출) 자유무역지대(Free Zone)를 통과하는 재수출 비중은 줄었으나 일반 수출이 증가하며 '23년 상반기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 증가
 - '22년까지 수출 비중 1위였던 편직물·의류 수출은 2023년 1~6월에도 수출 비중 1위를 차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은 11.4% 감소
 - 조칼륨·조인산·비료 등의 국제 가격은 '22년에 고공행진했으나 '23년 들어 보합세를 유지하며 요르단의 동 품목 수출 규모도 일제히 하락
 - 장신구 및 귀금속은 전년 동기 대비 91.0% 수출 증가

〈2023년 1~6월 요르단 무역 동향〉

(단위: US\$ 백만, %)

수출			수입		
품목	수출액	전년 대비 증감률	품목	수입액	전년 대비 증감률
의류 및 편물류	899.7	△11.4	원유 및 관련품	2,162.4	△15.6
비료	802.2	△12.9	자동차/오토바이/부품	981.6	27.8
보석 및 귀금속	658.1	91.0	기계/기계도구/부품	785.3	6.1
조칼륨	519.7	△27.3	보석 및 귀금속	752.8	△23.1
조인산	443.5	△14.0	기계류/전기제품/부품	620.0	7.3
화학제품	341.8	18.6	플라스틱제품	416.6	△12.7
기타제품	2,264.1	13.4	기타제품	6,947.7	△3.5
일반 수출액	5,929.3	2.3	총 수입액	12,666.6	△4.8
재수출액	446.3	△14.4			
총 수출액	6,375.7	0.9			

자료: 요르단 통계청

- '23년 상반기에 아랍국 대상 17%, 유럽 대상 13%의 수출 증가를 보였지만, 아시아 대상 수출이 14% 하락
- 같은 기간에 북미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증가했으나 인근 아랍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19% 감소

〈2023년 1~6월 요르단 상대국별 무역 동향〉

(단위: US\$ 백만, %)

대상 지역	수출		수입	
	수출액	전년 대비 증감률	수입액	전년 대비 증감률
아랍 국가 (GATZ)	2,062.1	17.4	3,206.2	△19.3
북미	1,427.9	1.8	1,031.0	23.3
유럽	283.8	12.9	1,956.2	0.3
아시아	1,559.3	△13.7	5,022.5	2.2
기타	596.0	2.9	1,450.5	△10.9

자료: 요르단 통계청

- (수입) '23년 1~6월, 국제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원유 및 관련품 수입 규모는 15.6% 하락
 - '자동차·오토바이·부품' 품목의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8% 증가했고, 무역수지 적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62억 9,096만 달러 기록

▣ 요르단 수입시장 경쟁 동향

- (경쟁국별 비중) 자동차·부품 산업은 '21년까지 한국이 요르단 수입시장 1위였으나 '22년 이후 중국에 1위를 추월당함
 - 플라스틱, 기계류, 철강, 의류 등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수입 비중이 높음
 - 그 외에 물류비가 낮고 FTA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아랍국·EU국 수입 비중이 높음

〈'23년 1분기 한국의 주 수출 품목별 요르단 수입대상국 순위 및 점유율〉

(단위: %)

품목 (HS 코드)	주요 수입대상국					한국 점유율
	1위	2위	3위	4위	5위	
자동차·부품(87)	중국(24.2)	한국(19.4)	미국(12.9)	독일(10.8)	일본(9.9)	19.4
원자로·보일러·기계류(84)	중국(30.9)	미국(11.7)	독일(8.8)	이탈리아(8.6)	룩셈부르크(6.2)	1.7
플라스틱(39)	사우디(38.4)	중국(20.3)	UAE(5.9)	터키(3.7)	미국(3.7)	1.8
전기 기계 및 장비 부품(85)	중국(53.3)	태국(5.5)	미국(4.1)	베트남(3.7)	이집트(3.6)	1.0
의류(60)	중국(40.9)	대만(20.8)	튀르키예(11.2)	말레이시아(8.3)	스리랑카(7.5)	1.6

자료: GTA

- (한·중·일 경쟁 동향) 중국은 요르단에 한국의 5~8배 규모로 수출 중이며, 일본은 '18년 이후 대요르단 수출이 전반적 하락세, '20년 이후 한국에 추월당함

〈2019~2023 한·중·일 대요르단 수출 현황〉

(단위: US\$ 백만, 괄호는 순위)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년 1분기
한국	381 (12)	431 (10)	503 (13)	534 (14)	126 (12)
중국	3,086 (2)	2,712 (1)	3,144 (2)	4,171 (1)	984 (1)
일본	404 (11)	330 (14)	361 (15)	348 (18)	82 (18)

자료: GTA

▣ 수입 규제

- (개요) 요르단은 '00년 WTO 가입 이후 '01년에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 WTO 기준에 따라 재정비, 원칙적으로 자유무역 지향

- 한국은 '77년에 요르단과 무역협정을 체결한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 전에 요르단 정부로부터 수입 면장을 받을 필요가 없음
- 단, 요르단은 일부 자국 생산 가능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 조치를 발효 중이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부처에서 수입 허가 또는 등록 인증을 취득해야 함
- '95년 수입면허제도 폐지로 인해 수입업자는 면허 없이 자유롭게 외국 상품을 수입 가능
 - * 수입면허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수입된 모든 농산물·식품은 요르단 식품의약품국(Jord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JFDA)에서 검사를 거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품 첨가물은 요르단 표준계량원(Jordan Standards and Meteorology Organization; JSMO)에서 승인 필요


〈요르단 수입 금지·규제 품목 및 수입 허가·등록 필요 품목〉

구분	품목명
수입 금지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종류의 약물(마약), 마약성 작물(양귀비, 대마초 등), 유독 물질, 공공보건에 해로운 물질, 무기, 폭발물, 탄약, 소리만 나는 모형 총 · 연식 5년 이상 된 중고 자동차, 10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는 제외), 디젤 승용차 · 할랄 인증 안 된 고기류(할랄 대상 고기만 해당) ·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쇼핑백(Non-biogradable plastic bags) 등 · 산호(Coral), 석궁(Crossbows) · 3인치 초과 미사일 폭죽(어린이용 폭죽, 폭죽 달린 아동용 권총 포함) · 시계, 펜 등의 도청장치 또는 카메라를 내장한 위장물품 및 장비
수입 규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원유 파생상품(Mineral Oil, 광유 제외), 가정용 가스 실린더: 요르단 석유 정제 회사(JPRC)만 수입 가능 · 흑시멘트(Black Cement): 요르단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만 수입 가능 · 폭발물, 화약, 미정제된 인산염: 요르단 인산염 광산회사(JPMC)만 수입 가능 · 중고 타이어: 요르단 타이어 수리 공장만 수입 가능 · 미가공된 가죽(원피): 요르단 제혁 회사만 수입 가능 · 무기 등 방산제품: 요르단 정부에서 인가하는 업체 및 기관만 수입 가능 · 중고 카메라: 표준계량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업체 및 기관만 수입 가능
수입 허가 필요 품목 (괄호 안은 관할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 타이어(Used tires grated), 밀가루와 그 부산물, 흰 시멘트, 중고 오븐, 온수기, R12를 사용하는 냉장고용 압축기, 철근(Rebar)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동물의 냉동 정액, 올리브유, 냉동 동물, 살아있는 동물, 날고기, 냉동 고기, 방부 처리한 야생 동물, 수입 유가공품, 농업용 묘목, 요거트, 농업에 사용되는 종자 및 과일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 감자, 양파, 마늘,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수입한 과일 및 채소 (농산물마케팅가공회사: Agricultural Marketing & Processing Co.) · 질산암모늄, 병기 탄약, 폭발물, 잭나이프(스위치 블레이드), 연료로 작동하는 장난감 자동차, 리모콘으로 조정되는 장난감 비행기, 모든 종류의 무기 및 장비(Weapons and equipment of all kinds), 3D 프린터, 상업용 전자게임, 자기 방어 용품(내무부 공중안보부서: Public Security Directorate, Ministry of Interior) · 방사성 물질, 우라늄, 엑스레이 기계 또는 방사선 관련 기계 등 (에너지광물자원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구분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수신기와 방송국, 무선 알람 장치, 무선 보안 감시 카메라(Wireless surveillance cameras), 원격 조정 장치(모터, 차고, 창문, 셔터 포함: TV, 비디오 장치 제외), GPS 위치 장치(GPS locators devices), 휴대폰 장비, 무선마이크, 통신용 단말기, 원격 조정 장난감, 비텔레비전 방송용 위성 수신기(Satellite receivers for non-television broadcasting), 레이더(Radars), 케이블 및 금속 탐지기(Cable and metal detectors) (통신 규제위원회;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 디코더와 위성방송 수신기 (요르단 라디오 텔레비전 공사; Jordan Radio & Television Corporation) · 군복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 브로민화 칼륨, 식용색소, 석면, 파이프와 패널, 산소, 산화질소, 레이저 팬 등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 식품 첨가물(Food additives), 우유 및 이유식, 의약품 전체 (백신 포함), 향생제, 운동선수용 식품 보조제 (식품안전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우편 분류기 등 (정보통신기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컬러 복사기 (중앙은행; Central Bank of Jordan) · 아르투아식 우물 드릴 등 (수자원관개부; Ministry Of Water And Irrigation)
수입 등록 필요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요르단 식품의약품처; Jordan Food & Drug Administration) * 일반적으로 현지 관청에 등록된 에이전트를 통해 제품 등록 진행

자료: 요르단 관세청

▣ 요르단 수입품 인증제도

국가	인증명(인증기관)	분야 (HS 코드)	인증마크	비고
요르단	인증명: 요르단 품질 인증 (Jordanian Quality Mark) * 이하 JQM 인증기관: 요르단 기술표준국 (Jordan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	전 품목 (의약품 및 수의학 제품은 제외)		2007년 도입

- 인증 개발 기관: 요르단 기술표준국(JSMO) 및 요르단 왕립과학협회(RSS)
- 인증 절차
 - ① JSMO의 인증마크 담당 부서(quality mark department)에 JQM 획득 신청
 - ② 해당 부서는 JQM 부여 가능 여부 검토 및 제조시설에 대한 방문 실시
 - ③ 신청이 승인된 경우 신청 기업은 관련 서류가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60일 이내에 JSMO 담당 부서에 제출

- 제출 서류에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 기업에 대해 JSMO 인증위원회가 별도의 기술 평가 및 경영 시스템 평가 실시
 - ④ JSMO 인증 결정 이사회는 샘플 조사 결과를 평가
 - 샘플에 JQM 승인을 위한 요건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적합 사항에 대한 수정 기간을 재협의
 - ⑤ 인증서 부여를 위한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될 경우, JSMO 인증 결정 이사회가 최종 인증 승인
 - ⑥ JQM 인증서는 최초 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간 효력이 있으며 이후부터는 매년 갱신 필요
- 인증 소요기간
 - 제품(샘플) 검토 기간은 제품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60일(단, 요르단 외부 공장의 경우 90일), 제품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120일(단, 요르단 외부 공장의 경우 150일) 소요
 - JQM 승인 완료일로부터 인증서를 최종 발급받기까지 30일 소요

〈JQM 인증 취득 관련 주요 소요 비용〉

단계	비용 (JOD)
JQM 신청	품질 마크 발급을 위한 초기 평가 (100)
	계약서 및 관련 문서에 대한 제출 허가 (50)
JQM 승인, 갱신	최초 승인 또는 갱신 단계에서 각 제품에 대한 기술 평가 (600)
	공인기관 인증서가 없을 경우 품질 경영 시스템 평가 (300)

다. 투자

▣ 대요르단 투자 진출 동향

- (개요) 요르단은 투자환경법 제정 및 각종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 '21년까지 요르단 투자 유치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약 11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달성하며 전년 대비 83% 증가

〈2017~2022 대요르단 해외 투자 유입(Flow) 현황〉

(단위: US\$ 백만)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 유입량	2,030	955	730	760	622	1,137

자료: UNCTAD

- (한국의 투자 진출) 한국 기업의 대요르단 투자액은 '00년 이후 '22년까지 총 1.25억 달러 규모이며 같은 기간에 설립된 신규 법인 수는 총 17개 사
 - '18년부터 '23년까지 한국 기업의 투자는 전력 공급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동 기간 건설업 분야에서 몇 차례 투자 신고가 있었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음
 - 현재 요르단에는 한전알카트라나, 한전케이피에스, 한전푸제이즈, 암만아시아, 한국남부발전 및 대한풍력 등 전력 분야 법인 6개 사가 운영 중
 - 한전은 '23년 5월부터 요르단 한전알카트라나, 한전푸제이즈 등 2개 사업의 지분 매각을 위한 자문사 선정 작업 진행 중
 - * 한전은 알카트라나 지분 80%, 푸제이즈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알카트라나는 29~45%, 푸제이즈는 40%를 매각한다는 계획
 - '22년에는 신고건·투자액이 없었고, '23년의 경우 7월까지 종합건설업에서 1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음

〈2019~2023 대요르단 한국 기업 투자 규모〉

업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건	투자액	신고건	투자액	신고건	투자액	신고건	투자액	신고건	투자액
전력 공급	2	71,953	6	26,772	2	3,400	0	0	1	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경쟁국 투자 진출 동향

- (중국) 중국은 사우디에 이어 요르단의 2대 무역 파트너로서 '10년대 이후 요르단 대형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보였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진 예는 적음
 - '20년에는 암만 남부에 46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4,000만 달러 규모)에 중국 SEPCO 전력공사가 참여하여 완공한 바 있음
 - * 참고로 중국 SEPCO 전력공사는 UAE, 사우디, 바레인 등 중동지역 전력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1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요르단에 추가 건립할 계획

- '23년 6월 요르단 Manaseer Group 및 중국 CH-Auto사 간에 요르단 내 전기자동차 공장 설립을 위한 파트너십 협정 체결
 - * '23년 내 차량 양산을 목표로 요르단 알카트라나 산업지구에 공장 설립을 추진. 이때 생산될 자동차 모델은 준저가형(21,000달러)에서 고급형(197,000달러)까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며 CH-Auto는 K50, K20 및 K25 모델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장에 현지화할 계획임
- (일본) 국가 간의 경제 및 투자 관계 측면에서 '18년 11월 투자 촉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이 체결되어 '20년부터 발효
 - '21년 현재 인프라·기자재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기업 약 20개 사의 요르단 지점이 운영 중으로, 양국 주요 기업이 참가하는 요르단-일본 투자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 요르단 투자환경법 제정

- (개요) '22년 10월 16일 '2022년 투자환경법(The Investment Environment Law of 2022)' 최종 법령이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3년 1월 14일부터 법률 시행
- (주요 내용) 동 법은 산업, 상업, 농업, 서비스, 관광, 정보 기술 등 요르단 내 모든 분야에 적용됨. 동 정책은 요르단 내 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 성장, 투자 경쟁력과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임.

〈요르단 「투자환경법」 최종 법령 주요 내용〉

구분	조항	「2022 투자환경법」 내용
인센티브	5	·투자자는 행정·기술 직종에 비요르단인을 전체 직원 수의 25%까지 고용할 권리가 있음. 단, 해당 직종에 요르단인 고용이 어려울 경우 비요르단인 고용 허용 비율은 40%까지 인상됨
	10	·①저개발 지역에서 운영되거나 ②실제 사업 운영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지속되며 최소 250명 이상의 요르단인을 고용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 소득세는 면제되거나 30% 이상 감면됨
	15	·한 프로젝트에 500만 JOD 이상을 투자하거나 250명 이상의 요르단인을 고용한 투자자는 법률·규제·조직 조항의 수정/변경에 영향받지 않도록 보장 ·투자자에게 상기 두 조건 중 하나를 달성한 날로부터 7년 동안 법률·규제·조직 조항의 수정/변경의 비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 ·위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자는 입법 또는 규정 개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장관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함 (①입법 또는 규정 개정과 그 결과가 투자자에게 미쳤거나 미칠 부정적인 영향 ②본 조 (A)항에 언급된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③입법 또는 규정 개정 또는 변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요청서)

	16	·2014년 투자법 제(30)호에 따라 관세·세금 혜택 및 면제 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향유하는 경제 활동은 법 시행일로부터 첫 7년 동안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부여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혜택, 면제, 인센티브를 유지
각종 협 의체 구성	8	·투자협의회(Investment Council)는 다수의 장관들, 중앙은행 총재, 요르단 상공회의소와 산업 회의소 각각의 임원진에서 2명의 의장, 사업가를 포함한 민간 부문 대표자 4명, 농업·관광업·서비스/금융업 등 대표 3명 등으로 구성
	14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설립을 단 1회에 승인하기 위해 장관 의회(Council of Ministers) 내에 「인센티브 및 감면 위원회(Incentives and Exemptions Committee)」를 설치
	13	·장관 의회는 갹신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투자자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350명 이상 요르단인 고용, 50% 이상의 요르단인 고용, 사업 부가가치 규모 등) 인센티브 및 감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 ·장관 의회는 인센티브 및 감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여 요르단 모든 지역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 또는 면제를 채택 가능 ①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국고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가격 또는 임대료와 관련된 면제 및 인센티브 ②에너지 및 수도비 지원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③투자자가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제활동에 제공한 인프라 서비스의 구축 비용을 정당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④최소 수의 요르단 노동력을 고용하는 대가로 세금 또는 관세 면제 또는 감면을 부여 ·인센티브 및 감면 위원회는 직·간접 투자를 위한 투자 펀드나 기타 상호 펀드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를 검토하고 처리
	44	·투자부 장관 결정에 따라 투자부 내 하나 또는 복수의 위원회(Committee)가 구성되며 해당 위원회들은 투자부 사무총장을 장으로 함 ·위원회는 투자자 고충 처리 요청을 처리하며, 공공기관이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투자부 장관은 권고사항을 투자협의회에 제출
등록 및 면허 발급	36	·투자자 등록/허가 등의 업무를 위한 정부 당국을 설립하고,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지정
	37	·투자부는 경제활동 허가를 위한 포괄적인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기업이 투자부 또는 관련 기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며, 제출일 기준 15일 내에 신청서 처리를 완료해야 함 (15일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자동 승인으로 간주) ·투자 업무를 처리하는 양 기관 사이에 전자적 링크가 존재하는 경우, 일방의 기관은 투자자에게 같은 문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없음
	43	·동 법률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면허 발행을 위한 정부 당국을 설립
분쟁 해결	45	·공식 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투자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의된 규칙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때 외국/국제 중재 재판소가 외국 판결법에 따라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음. 다음 규칙 중 하나를 적용 가능(①요르단 중재법 ②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 ③국제 상공회의소 중재 규칙) ·중재 장소는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암만

	46	·투자계약 분쟁에서 법원 또는 중재 재판소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법을 적용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국제사법 규칙상의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요르단 법을 적용
기타	52	·이 법이 시행되면 2014년 투자법 30호(Investment Law No. 30 of 2014)는 폐지됨. 다만, 투자법에 따라 발행된 규정/지침/결정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폐지·수정 또는 대체될 때까지 계속 시행됨

자료: Invest Jordan 사이트

▣ 투자 진출 진입장벽·인센티브

- (소유 지분 제한 분야) 비요르단인 투자자는 요르단에서 100% 개방되어 있는 분야에만 단독투자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요르단인과 합작투자가 필요

〈분야별 비요르단인 지분 소유 제한 비율〉

부문	내용	소유 가능 비율 (%)
상업	도소매업(유통, 수출입 등), 리스 활동(금융 리스를 제외)	50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컨설팅, 건설 계약 및 관련 서비스, 건축 및 건설 목적을 위한 토양 검사 및 화학 테스트 등 관련 기술 서비스, 고용 및 인력 제공 서비스, 은행 및 금융 서비스를 제외한 중개 서비스, 광고 서비스,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화폐 교환 서비스, 호텔 및 모텔을 제외한 케이터링 서비스, 여행사 서비스	50
교통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관련 서비스	49
기타	송신기/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장비의 유지보수, 주거용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분양·임대	49
	스포츠 클럽	49
	건설 목적으로 모래·바위·건축용 돌 등의 채굴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 조사 및 보안 서비스, 개인 신변 보호 서비스 및 관련 교육, 개인 촬영 활동, 화기 및 탄약 거래 거래 및 수입, 민간 사격 활동 관련, 폭죽과 관련된 거래 및 서비스, 베이커리 활동, 운송 활동을 제외한 일체의 재고 서비스 활동	불가

자료: 요르단 투자청

- (인센티브) 분야별·지역별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포괄적인 재정·관세 부문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모든 산업 분야에 기본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는 다시 세부 분야별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통해 차례로 보완됨

〈요르단 투자 시 기본 인센티브(산업별)〉

산업 분야	세금	인센티브 내용
전 분야	법인소득세	저개발지역에서 경제활동 시 10년간 50% 감면
	판매세*	특정 경제활동을 위한 생산투입물(원자재)과 서비스에 면세
	관세	특정 경제활동 분야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 면제
산업 및 수공업	관세	특정 산업활동을 위한 ① 특정 원자재의 수입, ② 생산요건 및 고정자산 ③ 이중 용도 고정자산에 대해 면제
ICT	법인소득세	ICT 분야 기업에 5%로 감면
	판매세	특정 수입품 또는 현지 구입품에 대해 면제 및 ICT 분야 기업이 제공한 특정 서비스에 대해 영세율 적용
	관세	ICT 분야 기업의 특정 수입품에 대해 면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판매세	재생 가능 에너지원, 에너지 절약 시스템 및 장비에 영세율 적용
	관세	재생에너지 부문 기업의 특정 상품 수입에 대해 면제

주: 통신업, 금융중개업, 세무·감사·컨설팅 등 금융업, 운송업, 보험업, 광업, 전력공급업, 수도·가스·석유 공급업 등 대형 기간산업에는 판매세 면세를 적용하지 않음

- (규제) 가장 최신 규정인 2023년도 투자환경 규제 규정(Regulation No. 7 for the Year 2023)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30조) 각 기준에 부여된 인센티브, 면제 및 추가 혜택의 양은 투자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33조) 전문 기술이 필요한 행정 및 기술직군에는 비요르단인을 25% 미만까지 고용 가능
 - * 단, 웹사이트에 일자리를 광고했으며 가장 널리 배포되는 두 개의 지역 일간 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비요르단인 직원의 비율을 총 직원 수의 40% 이하까지 늘릴 수 있음
 - (45조) 합자조합 계약을 통한 회사 설립 시 민간 투자기금 출자금은 1억 요르단디나르 이상이어야 함

▣ 요르단 주요 산업단지 및 Freezone, 스타트업 지원기관

- 요르단에는 6개의 공영 자유무역지대와 38개의 민영 자유무역지대, 총 8개의 산업단지를 운영하면서 외국 투자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
 -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전기, 수도, 통신망, 도로망, 물류·창고, 금융 등 투자가 대상 필요 시설 및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됨
 - 대부분 산업단지는 입주 기업의 물품 수입 관세, 라이선스 비용 등 법인 활동 관련 세금을 면제하며 건물 장기 임대 및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요르단 주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스타트업 지원기관〉

국가	단지명	구분	규모	주요 사항
요르단	JODDB INDUSTRIAL PARK	산업단지	3,8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프라크주에 위치 · Jordan Design and Development Bureau(요르단 방산기업)이 소유 · 요르단 국방 및 군사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지원, 서비스 및 높은 보안을 제공 · 민간 자유무역지대로 30년짜리 임대계약(갱신 가능), 고품질 산업 인프라 제공 · 수입 수수료, 관세, 기타 세금, 라이선스 비용 등이 없음
	Industrial Gate Free Zone	산업단지, 프리존	총 개발 면적: 1,300,000㎡ 총 산업 부지: 6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프라크주에 위치 · 2,500~20,000㎡ 범위의 산업용 부지 임대 및 여러 부지 결합 임대 가능 · 작업장과 격납고 임대 가능 · 수입 수수료, 관세, 기타 세금 등 없음 · 비요르단인 직원의 급여 및 모든 수당에는 소득세 및 사회복지세가 부과되지 않음 · 건물 및 부동산 건설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과 건물세 및 토지세가 없음
	King Hussein Business Park	산업단지	1,4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HBP는 요르단 투자위원회(JIC)의 규제 하에 요르단 투자법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국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제공 · 100% 외국인 지분, 주재원을 위한 간편한 라이선스 절차, 간소화된 비즈니스 절차 등의 이점 보유 · 75개 이상의 국제/국내 기업과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유치
	아카바경제특구 (ASEZ)	경제자유구역	375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르단의 유일한 항구인 역사적인 도시 아카바는 홍해에 위치(3개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자 4개국 교차하는 전략적 위치) · 중동의 관광, 레크레이션 서비스, 전문 서비스, 복합 운송 및 부가가치 산업을 위한 주요 면세 경제자유구역으로 기능 · 항구와 국제공항을 보유, 현재 항구에는 최대 75,000DWT의 대형 건조물 운반선과 파나막스 컨테이너선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이 수용
	Queen Alia International Airport Free Zone	경제자유구역	1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르단 암만에서 남쪽으로 30km(18마일) 떨어진 지지야(Zizya)에 위치하며 항공 물자 관련 무역 허브 역할 · 투자 인센티브 및 세금 면제, 개발 및 자유구역,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 등의 이점 보유 · 100% 외국인 지분, 간편 비자 허가 등 허용
	Zarqa Free Zone	경제자유구역	5,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암만에서 북동쪽 35km 떨어진 자르카에 위치하며, 요르단과 이라크, 사우디 등 주변국을 연결하는 역할 · 65개의 라이선스를 받은 산업 회사와 175개 이상의 창고 보유

국가	단지명	구분	규모	주요 사항
				· 투자 인센티브 및 세금 면제, 개발 및 자유구역,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 등의 이점 보유
	StartupsJo	스타트업 지원기관	-	· ISSF(Innovative Startups and SMEs Fund)의 지원을 받은 요르단 정보통신기술위원회가 관리 · 요르단의 기업가, 투자자 및 스타트업들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 · 유망한 스타트업을 식별 및 지원하고 성공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펀딩, 사무공간 등과 함께 기업 네트워크를 제공
	iPARK	스타트업 지원기관	-	· iPARK는 요르단 암만 Jubaiha에 있는 왕립과학협회(Royal Scientific Society)에 위치 ·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전용 시설,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통해 혁신적인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 · 중매(matchmaking), 자문, 법률 지원 및 역량 구축을 통해 기업가를 지원 · 요르단 내 다양한 기관,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파트너십 보유

자료: 각 기관 웹사이트

- '23년 8월 ISSF(Innovative Startups and SMEs Fund)는 요르단을 포함한 MENA 지역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벤처 캐피털 펀드인 Sadu Capital의 초기 단계 펀드에 150만 달러 투자와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
 - * 동 협력을 통해 요르단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 ** Sadu Capital은 다양한 부문의 초기 단계(Pre-Seed, Seed, and Series A stages)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며 요르단 이외에 사우디, UAE 등에서 활동

라. 프로젝트

▣ 요르단 프로젝트 진행 현황

- 요르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성장률 하락과 재정난으로 인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진행이 잠정 지연
- 단, 요르단 정부의 수자원 분야에 대한 해외 원조금 우선 배정, 에너지·디지털 부문의 전환 전략을 통해 기존에 연기된 프로젝트의 재추진 예상
- 중점 추진 분야는 물, 에너지 등으로 물 산업 관련 프로젝트 지속 발주 및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추진 중

〈요르단 수자원·에너지 분야 주요 현황〉

수자원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르단의 연간 1인당 물 보유량은 120㎥에 불과, 물 공급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빈곤 · 최근 시리아와 이라크로부터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공공 수도시설에 과부하 발생 · 요르단 정부는 수도 공급망 건설, 담수화, 폐수처리시설 구축 등 여러 프로젝트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르단은 비산유국으로 에너지원 92%를 수입에 의존, 자국 에너지 수요는 연간 2.3%씩 증가 · 요르단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으며(약 20%), 전력 공급량이 많아 잉여 전력의 수출 추진 · 국가 전력망에서 전력 누수 방지, 에너지 효율 증강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중

〈요르단 주요 수자원·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 현황〉

국가	분야	지역	규모 (금액)	진행 상황
요르단	수자원	아카바, 암만	2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명(운영 여부) : 아카바-암만 담수화 및 송수관 건설 프로젝트 (진행 중) ○ 발주처 : 요르단 수관개부 ○ 개요 : 1단계(담수화 플랜트 및 송수관 건설) 및 2단계(담수화 플랜트 설비 확장)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100mcm/1년, 2단계 : 120mcm/1년 → 총 담수화 용량 : 220 mcm/1년 - 아카바-와디림-암만 파이프라인 길이 : 총 420km ○ 예정사항 : '23년 12월로 입찰 제출 마감일 연장
요르단	에너지	아카바	1.5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명(운영 여부) : 아카바 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진행 중) ○ 발주처 : 아카바개발공사 ○ 개요 : 2단계에 걸쳐 천연가스와 압축천연가스를 아카바경제구역 내에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및 유통망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AlQweirah City Gas Supply Project - 2단계 : Aqaba 전 지역 대상 Pipeline & Network 구축 ○ 예정사항 : '23년 11월 입찰 공고 예정

자료: 요르단 정부 보도자료 및 KOTRA 자료 종합

마. ODA

- 한국은 '10년부터 대요르단 원조 분야 다양화 및 무상 원조 시행
 - '10년대 중반까지 한국수출입은행(EDCF)은 對요르단 프로젝트 차관 제공에 약 2,700억 원 자금 승인
 - '13년 12월 한-요 무상 원조 기본협정 체결로 '15년부터는 ODA 사업기관이 KOICA로 변경, 프로젝트 원조 이외 인력개발·기술협력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15년부터 '22년까지 총 700억 원 이상 규모의 무상 원조 추진

〈KOICA의 요르단 ODA 주요 사업 현황〉

(단위: 억 원)

연	착수년도	사업명	사업비
1	2017	요르단 시리아 난민 밀집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3개 학교 건립사업	127.6
2	2017	요르단 자르카 기술고등학교 설립	119.7
3	2020	요르단 발카대학교 산하 카락·이르비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훈련	71.4
4	2019	UNDP 아랍국가 공공행정 효율화를 위한 지역협력 강화	14.7
5	2020	요르단 카락주 파쿠오 지역 노후 상수도 관망 개선	110.3
6	2020	아랍어 점자 및 일반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저가형 보조공학기기 보급	5.0
7	2020	석사학위-경제발전을 위한 규제관리	0.6
8	2021	요르단 고용실업 개선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	1.7
9	2021	요르단에 비특정 분야 관련 영프로그래서널(해외) 파견	0.8
10	2021	요르단에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0.8
11	2021	요르단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75.6
12	2022	요르단 제라시주 마스터바 지역 노후 상수도관망 개선사업	103.8
13	2022	UNICEF 요르단 취약청년 및 지역사회를 위한 평등한 기회 제공	73.0

자료: ODA Korea

- 향후 에너지 효율화, 청년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등 분야에 대한 ODA 사업 유망 예상
 - 요르단 정부는 전통 에너지원 탈피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관련 재정지출 감축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민간 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규·제도 정비, ESS 등 신규 기자재 도입 등 추진 필요
 - 또한 요르단은 청년인구(15~24세)가 국가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젊은 국가이나 실업자 중 청년 비중이 44%에 이를 만큼 청년 인력 활용도가 낮은 국가
 - 난민 출신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의무 교육 대상임에도 교육의 기회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직업훈련, 학교 설립 등을 통한 교육 저변 확대 필요

가. 교역

▣ (개요) '23년 1~6월, 한국의 對요르단 수출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3.81억 달러, 수입은 53.9% 감소한 0.35억 달러

〈최근 5년간 對요르단 수출입 현황〉

(단위: US\$ 백만,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6월)
수출액(증감률)	531(2.1)	470(△11.6)	668(42.4)	821(22.9)	381(△1.8)
수입액(증감률)	94(72.8)	84(△11.0)	106(27.2)	146(36.9)	35(△53.9)
무역수지	436	386	562	675	345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출) '23년 들어 하이브리드 자동차(161.9% ↑), 전기자동차(211.2% ↑), 의약품 (131.4% ↑) 및 기타 석유화학제품(115.2% ↑) 등 품목의 수출액 크게 증가

- (세계 비교) 한국의 전 세계 수출 증가율 대비 대요르단 수출 증가율을 비교하면 농약 및 의약품, 석유화학제품, 편직물 등은 호조,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은 부진

〈2022~2023 한국의 대요르단 품목별 수출〉

(단위: US\$ 천, %)

'23년 순위	MTI 코드	품목명	수출액		2023/2022 수출 증감률		
			2022년	2023년(1~6월)	對요르단(A)	對세계(B)	평가
1	741	자동차	633,385	290,208	0.7	46.5	부진
2	226	농약및의약품	23,246	13,543	128.6	△31.5	호조
3	742	자동차부품	26,615	11,494	△19.9	△1.4	부진
4	219	기타석유화학제품	6,156	9,404	115.2	△28.3	호조
5	214	합성수지	29,649	7,059	△65.9	△26.3	부진
6	436	편직물	13,107	6,098	△4.5	△24.1	호조
7	320	고무제품	4,110	4,410	62.2	1.2	호조

'23년 순위	MTI 코드	품목명	수출액		2023/2022 수출 증감률		
			2022년	2023년(1~6월)	對요르단(A)	對세계(B)	평가
8	621	알루미늄	77	3,801	5,767.3	△25.2	호조
9	228	정밀화학원료	5,800	2,214	△33.2	30.2	부진
10	711	원동기및펌프	4,016	1,881	8.6	10.0	부진
11	835	건전지및축전지	3,193	1,869	62.6	7.4	호조
12	814	전자응용기기	5,234	1,793	△30.7	0.9	부진
13	015	기호식품	4,317	1,786	△6.3	2.8	부진
14	724	식품가공포장기계	1,130	1,744	461.9	19.2	호조
15	434	인조장섬유직물	2,215	1,588	98.9	△6.3	호조
16	713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4,951	1,581	△7.8	12.5	부진
17	310	플라스틱제품	3,120	1,445	△4.2	△13.9	호조
18	252	종이제품	4,902	1,135	△66.4	△7.1	부진
19	841	전력용기기	560	1,001	114.7	28.5	호조
20	511	신변잡화	3,406	1,001	△35.5	△8.8	부진
합 계			821,769	381,258	△1.8	△12.4	호조

주: 對세계 대비 對요르단 증가율이 높은 경우 '호조', 낮은 경우 '부진'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 호조 품목】

- (의약품) '22년부터 의약품의 대요르단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23년 6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한 1,352만 달러 기록
 * 인근국으로부터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관련 품목 수출 상승
- (친환경차) 요르단의 전기자동차 수입 대수는 '22년 이후 약 250% 증가
 - '22년에 통관된 총 55,000대의 차량 중 22%인 12,000대가 전기차이며, 요르단 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2022년 한 해 동안 170% 증가
- (연축전지) 요르단 내 전기차 수요 증가로 전기차 보조 전원용 연축전지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
 * 요르단 연축전지 수입 규모: ('21) 646천 달러 → ('22) 3,191천 달러 → ('23 1~6월) 1,862천 달러
- (가공포장기계) '22년부터 의약품의 대요르단 수출 증가 및 요르단의 대세계 수입 증가로 인해 '23년 6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약 758% 증가

【주요 부진 품목】

- (내연기관차) 요르단 시장의 내연차 수요 감소로 가솔린·디젤 등 기존 내연기관 승용차, 화물차 등의 대요르단 수출 감소
- (합성수지) 저밀도에틸렌의 수출액은 증가(65.7%)했지만, 폴리프로필렌(△70.8%), 염화비닐수지(△94.6%), 기타 합성수지(△18.8%)들은 큰 폭으로 감소

▣ 우리 기업 수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구분	성공 사례 및 시사점
요르단	<p>(내용)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용 · '22년 무역관에서는 한국 식품 진출 관련해 요르단의 대형 유통망 두 곳(Carrefour, Cozmo)에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시 · 국내 기업 A사의 해외 최초 수출 성약 약 2,000달러 달성</p> <p>☞ 요르단 소비자들의 한국 식품 선호도 증가 및 요르단 청년층의 친한 기류 형성, 현지 온·오프라인 판촉전과 후속 지원을 통해 수출 달성</p>

구분	실패 사례 및 시사점
요르단	<p>(내용) 요르단 보건부의 해외 제품 등록 지연으로 인한 수출 실패 사례 · 국내 기업 C사는 성형 의료기기의 요르단 수출을 위해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거래에 합의 · 그러나 현지 인허가 기관인 보건부에 제품을 등록하는 절차가 약 6개월 소요되고 제품별 등록 비용이 높아 최종 계약 수주에 실패</p> <p>☞ 현지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네트워킹을 통한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관련 제반 행정 최소화 필요</p>

▣ (수입) '23년 1~6월, 한국의 대요르단 수입은 총 0.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53.9% 감소

- (주요 품목) 플라스틱 원료인 TBBPA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약 43%, 구리 제조 및 알루미늄 압연 관련 원재료는 약 30%를 차지하여 대요르단 수입액의 73%가량이 화학·소재산업용 원자재로 구성

〈2023년(1~6월) 한국의 대요르단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천, %)

순위	MTI 코드	품목명	2023년	
			수입액(1~6월)	증감률
1	219000	기타 석유화학제품 (브롬화 난연제)	15,387	△58.8
2	622130	구리 스크랩	7,271	△49.4
3	621120	알루미늄 스크랩	3,237	△3.1
4	228900	기타 정밀화학연료	1,728	△22
5	119090	기타 금속광물	1,382	△76.6
6	441109	언더셔츠	1,145	64.7
7	834300	인쇄회로	1,033	85.5
8	441207	남성 바지	1,019	132.7
9	441104	바지 및 스커트	742	△14.3
10	713110	공기조절기	341	0.0
합 계			35,560	△53.9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투자 진출

▣ (개요) '23년 9월 기준, 요르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10개 사이며, 이 중 6개 사는 전력 관련 법인으로서 요르단 전력 생산의 약 20% 차지

〈요르단 진출 한국 기업〉


연번	기업명	형태	업종
1	LG전자 레반트	법인	가전 판매
2	삼성전자 레반트	법인	가전 판매
3	제일기획	법인	광고·기획
4	코오롱글로벌	사무소	하수처리시설 건설
5	[한국전력] 알카트라나	법인	IPP2 전기 판매
6	[한국전력] 암만아시아	법인	IPP3 전기 판매
7	[한국전력] 푸제이즈 풍력발전	법인	풍력 발전
8	[한국전력] KPS	사무소	IPP3 운영(O&M)
9	남부발전 요르단 법인	법인	IPP2 운영(O&M)
10	대한풍력	법인	풍력 발전

주: IPP는 Independent Power Plant의 약자로 민자 독립 발전소를 뜻함

• 우리 기업 주요 진출 사례


1) 코오롱글로벌 남부암만 하수처리장 사업

- 위치: 요르단 남서쪽 지역
(암만에서 약 20km, 차량으로 30분 소요)
- 발주처: 요르단 수관리청(WAJ), 수관개부(MWI)
- 사업분야: 하수처리
- 설계용량: 17,000m³/일
- 현지법인: 코오롱글로벌
- 사업비: 약 4,900만 달러(EDCF: 4,620만 달러(94.26%),
발주처 자체 자원 조달 5.74%)
- 사업의의: 요르단 주민들의 위생환경 개선,
처리된 폐수를 농업용수로 활용




2) 한국전력 알카트라나 가스복합화력발전소(IPP2)

- 위치: 요르단 카락주, 알카트라나
(암만 남쪽 100km 위치, 차량으로 1시간 소요)
- 발주처: 요르단 전력공사(NEPCO)
- 계약용량: 373MW (2GT/1ST)
- 계약방식: 25년간('11~'35년) / BOO
- 총사업비: 약 4.6억 달러(한전 투자비 1억 달러 '21년 97.5% 회수)
- 준공일: 2011년 12월
- 현지법인: (한국) KEPCO 80%, (사우디) XENEL 20%
- 남부발전 요르단 법인에서 발전소 운영
- 사업의의: 요르단 정부의 두 번째 민자 발전 사업으로 발주처(요르단 전력공사)에서
100% 전력 판매 보장, 연료 전력 공급 조건



3) 요르단 대한풍력 타필라 풍력발전소

- 위치: 요르단 남부 타필라 지역
(암만에서 200km, 차량으로 약 3시간 소요)
- 발주처: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MEMR)
- 계약용량: 51.75MW (3.45MW × 15기)
- 계약방식: 20년간('21~'41년) / BOO
- 총사업비: 약 1.06억 달러(남부발전 및 DL 에너지 3,500만 달러 투자)
- 남부발전은 요르단 현지 법인 대한풍력을 통해
국제금융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국제상업은행 등으로부터
사업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
- 준공일: 2021년 7월
- 현지법인: 대한풍력 (남부발전 50%, DL에너지 50%)
- 사업의의: 남부발전은 최근 칠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와 이번 요르단
풍력발전소 착공 등 해외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



4) 한국전력 암만아시아 디젤 발전소 건설(IPP3)

- 위치 : 요르단 나우르
(암만 동쪽 40km 위치, 차량으로 40분 소요)
- 계약용량: 573MW (디젤 엔진 15MW x 38대)
- 계약방식: 25년간('14~'39년) / BOO
- 총사업비 : 약 7.6억 달러 (한전 투자비 1.04억 달러 '21년 105% 회수)
- 준공일: '14년 10월
- 현지법인: (한) KEPCO 60%, (일) 미쓰비시 35% 등
- 사업의의
 - 요르단 세 번째 민자사업으로 요르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
 - 저비용 가스원료 활용 Dual Fuel(가스↔중유) 운전 인프라 구축('16년)



5) 한국전력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 위치: 요르단 푸제이즈
(암만 남쪽 250km 위치, 차량으로 3시간 소요)
- 발주처: 요르단 전력공사(NEPCO)
- 계약용량: 89.1MW (3.3MW x 27기)
- 계약방식: 20년간('19~'39년) / BOO
- 총사업비: 약 1.8억 달러 (한전 투자비 0.74억 달러 '21년 68% 회수)
- 준공일: 2019년 7월
- 현지법인: KEPCO 100%
- 사업의의: 중동에서 한국전력의 첫 번째 풍력사업 진출 사례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구분	성공 사례 및 시사점
요르단	<p>(내용) 남부발전사의 요르단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발전은 '11년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MEMR)에 풍력발전 사업을 제안, '12년에 남부발전-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 간 '풍력발전사업 개발 양해각서(MOU)' 체결 · 약 1년 6개월간의 타당성 조사 후 '16년 요르단 자회사인 대한풍력 법인을 설립 · '16년 3월에 요르단 전력공사(NEPCO)와 전력 구매계약을, 6월에는 요르단 재무부와 정부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수익 확보 기반 마련 · '18년 10월에 착공, '21년 7월에 상업 운전 개시 <p>☞ 현지 법인을 통해 요르단 정부기관 대상 사업 제안, 부지 계약, 각종 인허가 승인을 진행하면서 현지 기관의 니즈를 보다 촘촘히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 가능</p>

구분	실패 사례 및 시사점
요르단	<p>(내용) 현지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족으로 진출 중도 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자재 제조기업인 A사는 '23년에 요르단 내에 동사 자본 100%의 단독투자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절차, 기간, 소요비용 등에 대해 KOTRA 암만 무역관에 문의 · 동사는 요르단 법인 설립 후 의료기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요르단이 아닌 MENA지역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계획을 세움 · 그러나 도소매업의 경우 외국인 자본 50% 제한 규정 및 개발자유구역에서 사업 영위 시에도 수입품의 요르단 중간 경우 시 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을 알게 됨 · 이에 따라 동사는 현지 법인 설립 계획을 보류 <p>☞ 중계무역지로서 요르단에 법인 설립 시의 이점과 약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필요</p>

다. 협력 유망 분야

▣ 요르단은 수출주도형 강소국가 건설을 목표로 제조업 발전 및 건설·운송·관광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외부 기관·기업과의 협력을 추진

- 요르단은 '2020~2025 요르단 국가 비전'을 통해 실적 중심적 정치·경제환경을 조성하여 '25년까지 연 7.5% GDP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
- 특히 에너지, 수자원, ICT, 농업 등 주요 분야별 5~10개년 전략 로드맵을 구성, 각 분야 생산성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요르단의 협력 수요 분야〉

분야	주요 협력 수요	분야	주요 협력 수요
전력·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레바논 등) 에너지 진출 협력 ·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자재(ESS) 도입 · 전력 누수 방지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도입 	수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기반시설 복구 및 개선 · 물 순환을 위한 폐수 처리 시설 확대 · 관개용·산업용 수자원 공급 확대
건설·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바 항만·터미널 인프라 개선 · 주택·빌딩 에너지 효율 개선, 법규 마련 · 레반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국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장비 분야 제조능력 향상을 위한 제조 노하우 습득, 기술 교류 · 장교 인력 교육 및 훈련
ICT·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등 디지털 전환 관련 인프라 구축 · 요르단 전자정부 포털 구축 ·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 및 VC 투자 유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향 학습 프로그램·인프라 도입 · 현지 환경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접근성 강화
운송·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학적 위치 활용을 위한 육로 인프라 개선 · 콜드체인 산업 육성 ·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물 사용량 절약 · 올리브 등 주 수출 작물 개발 · 농업 분야 가치사슬 효율화
의료·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의료기기·자재 도입 · 병원 신설 및 의료 인프라 확장 ·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약품 생산 · 자국-외국 기업 간 기술 교류, ODM 장려 · 상대국-요르단 간 제품 등록 행정 간소화

▣ G2G, B2G, B2B 형태의 다양한 협력 필요

- (G2G) 요르단 정부의 역량·경험 보완을 위한 KSP(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EIPP, 정부기관 간 상호 협력 등의 채널을 활용한 인프라 개발 기반 구축

KSP 2022/23 추진 사례

- (개요)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 요청으로 「요르단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를 '22.10월부터 '23.10월까지 1년간 추진
- (성과) 요르단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인증제도 및 법규 시행방안 수립, 에너지 효율 관련 요르단 건물 DB 구축 및 분석방안 수립, 요르단 관계자 방한 연수를 통한 한국의 최신 에너지 효율 관련 지식 공유 및 관련 기업 상담 수행
- (시사점) 국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분야의 양국 민관 협력 파트너십 기반 구축 및 국내 기자재 및 엔지니어링 기술의 현지 진출 추진

- (B2G/B2B) 물·전력·농업·교육 등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국내 기자재 및 엔지니어링 기업 진출 및 현지 기업과의 협력 추진
 - * 농업(스마트팜), 교육(이러닝), ICT(스타트업) 등 각 분야 기술 제휴, 합작투자 등 협업 유망
 - ** 교육 기회 불평등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성과 창출형 CSV 사업 추진 가능

스마트팜 분야 협력 추진 사례

- (개요) '23년 4월 「한-요르단 스마트팜 파트너십」 행사를 통해 양국 스마트팜 지원 정책 및 현황, 양국 기업의 B2B 상담 실시
- (성과) 양국 농업기업·기관 약 80개 사 참가, 총 30건 이상 상담을 통해 총 1,100만 달러 규모의 협력 MOU 4건 체결

- (공급망) 요르단의 '인산' 품목은 국내 핵심 관리 품목 중 하나임

품목	국가	주요 내용
인산	요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르단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인산염 매장량(약 37억 톤)을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산은 요르단 경제구조와 수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자원이며, 인산염은 농작물 비료와 동물 사료 보조제(animal feed supplements) 주원료로 사용되며, 요르단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비료의 주 원료 또한 인산임 - 요르단의 총 인산염 매장량은 약 10억 미터톤(Mt)에 달하며, 2022년 한 해 동안 요르단의 인산염 채굴 생산량은 1,000만 미터톤 ○ '22년 요르단 인산염 판매량은 전년도의 96억 8,200만 톤 대비 11%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준인 107억 7,400만 톤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인산염 가격은 '18년부터 '20년까지 지속 하락하다가 '21년부터 다시 상승했고 '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56% 급상승하며 톤당 163.67달러 기록 - 여기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 공급 대비 비료 수요의 증가 등 공급망 불안정성 등이 영향을 끼침 ○ '20~'22년에 요르단에서 전 세계로 수출된 인산의 규모는 약 16.2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는 '20년부터 현재까지 요르단에서 인산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22년 기준 인도의 수입 점유율은 약 84%에 달함 - 2대 수입국인 튀르키예는 2022년 수입 규모를 전년 대비 50% 이상 끌어올림 - 한국으로의 수출은 아직 전무 ○ 세계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료의 원료인 인산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로 인해 인산염 비료는 '21년까지 전 세계에서 638억 1,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 수치는 '40년까지 연평균 5.7%씩 성장하여 1,7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요르단 최대 인산 생산기업인 JPMC는 외국기업과의 신규 합작 투자, 채굴량 증가 등을 추진 중 - 이에 향후 수년간 요르단의 인산, 인산염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2년까지 한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이스라엘 등에서 동 품목을 주로 수입해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르단 인산/인산염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경우 수입선 다변화를 고려해볼 수 있음

Chapter



진출전략



※ 국방 선진화 움직임, 소비자 시장 디지털화 가속화, 중고차 수입 증가 속 전기차 저변 확대 등의 기회요인을 활용한 시장 공략
 ※ 물 부족, 안보 위협 등 위협 요인 대응을 위한 현지 정부 정책을 활용

1 PEST 분석

P 정치정책 (Polit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르단 왕세자의 사우디 왕가 결혼으로 요르단-사우디 경제 협력 진전 예상 •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해 '25년까지 총 33억 달러를 들여 물·전력·제조업 등 각 분야 183개 프로젝트 추진 • 요르단 정부는 '23년에 의료기자재 및 생활소비재 25개 품목에 대해 일반판매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무역 강화 의지가 높음 • 투자환경법 발효로 포괄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투자 유치 규모 상승 및 현지 사업 환경 개선 추진
E 경제 (Econom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GDP 성장률은 '23년에 2.9%까지 상승하여 '20년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세수 증가로 인해 재정적자 규모 하락 기대 및 공공 지출 증가 예상 • '23년에만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상향 조정으로 소비 위축 등 우려 • 외화자금 유치 목적의 유로본드 발행 등 외환보유고 확대 노력 • '23년 물가상승률은 '22년 대비 상승폭이 줄었으나 여전히 3%대 • '22년 FDI 규모는 전년 대비 82% 증가, '23년 1분기에도 49% 증가 • '23년 제조업과 전력 부문의 생산량 감소로 전체 생산량 하락
S 사회문화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요르단 인구는 1,138만 명인데 이 중 13%는 시리아 난민 • 암만(42.0%), 이르비드(18.5%), 자르카(14.3%) 등 3대 도시에 인구 집중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업 등 회복되며 소비 시장 활성화, '23년 요르단 소매시장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4.5% 상승 예상 • 로컬 소매점이 주요 판매 채널이었으나 최근 SNS 활성화 및 인터넷 이용 인구 급증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증가 • 한류 영향에 따라 한국산 식품·생활소비재에 관심 증가
T 기술 (Technolog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3년 사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소셜 미디어 마케팅 시도 증가 • 요르단 정부는 산업별 국가 DB 구축, 보안 시스템 확대, 5G 도입,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현 등 요르단 전반의 디지털화 추진 • 시중은행들은 효율적 전자 결제 시스템을 대부분 도입, 요르단인들의 은행 계좌 보급률 증가로 온라인 이체, 핀테크 등 활성화 • 요르단은 MENA지역 게임 및 스타트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펀딩 프로그램 및 대외 협력 움직임 지속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요르단 시장 SWOT 분석〉

<p>강 점(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브랜드 자동차·휴대폰 사용자가 많아 한국 제품에 친숙한 분위기 존재 • 자동차, 방산, IT, 의약품, 농업 등 다방면에서 한국산 제품은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강함 • 최근 OTT 플랫폼을 통한 한류(드라마·음악)로 인해 한국산 생활소비재에 관심 증가 	<p>약 점(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EU 등은 요르단과 FTA를 체결하여 무관세 적용 → 한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에서 불리 • 현지 기업의 기술력 및 A/S 능력 부족으로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장애 존재 • 현지 바이어 구매력 부족으로 국내 기업 희망 MOQ에 미달할 경우 거래 성사가 어려움
<p>기 회(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이점, 왕권 강화 등 정치적 안정성 • 에너지·환경·보건 등 정부 주도 프로젝트 추진 • 풍력·태양광 활용에 최적의 기후조건 보유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이커머스 시장 확대 • 온라인 환경에 친숙한 젊은 인구(50%) 보유 • 산업 고부가화·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입안 • 국방·보안 분야 선진기술·지식 이전 수요 高 • 중동지역 자동차 중계무역지로서의 입지 • 전기차 수입 급증, 생태계 구축 진행 • 의약 제조업 및 중동 대상 의료관광 발달 •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관심 다대 • 농축산 분야 스마트화 및 관개 시스템 개선 	<p>위 험(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소비재 및 중간재 제조업 기반 취약 • 만성적 재정 적자 및 낮은 경제 성장률 • 주변 걸프 국가 대비 낮은 구매력 •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 주변국 안보 이슈 지속 • 재정 부족에 따른 대형 프로젝트 추진 지연 •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 시장점유율 확대 • ICT 전환 수요 대비 역량 보유 기업 부족 • 도로·대중교통 인프라 노후화 • 중국 브랜드 전기차 생산·유통망 생태계 구축 • 수요 대비 양질의 의료기기·자재 부족 • 청년실업률 증가, 고물가 등 경제 불안요소 상존 • 물 부족으로 인한 농업 등 산업 황폐화 우려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현지 국방·보안기관의 대한 협업 수요 발굴 및 국내 기업 연계를 통한 장·단기 성과 확대	Team Korea 협업 통한 성과 확대
	• 민간 인플루언서 및 유통망 협업을 통한 디지털 마케팅 사업 다양화로 식품·생활소비재 진출 지원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 중고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수입 증가 및 부품 교체 수요를 반영한 현지 차·부품 시장 공략	자동차+교체 부품 시장 동시 공략
	•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에너지 전환 수요를 활용한 현지 프로젝트·기자재 시장 진출	요르단 에너지 정책 의제 활용
ST 전략 (위기 극복)	• 요르단 녹색 도시 구현 및 산업 스마트화 추세를 활용, 역량 보유 기업의 현지 ICT 시장 진출 확대 및 ODA 병행	공공·민간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 수요 공략
	• 현지 의료 수요 대비 부족한 고품질 의료기기·자재 수요를 이용한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	미용의료 등 현지 수요 품목 진출
	• 요르단 농업 부문 정부 정책 및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 환경을 반영한 성과 창출형 농업 파트너십 구현	농기자재·스마트팜 협업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분야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국방·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m Korea 활용을 통한 장·단기 성과 확대 · 국방 무관, 대사관 및 중동 방산협의회 무역관, 국내 방위산업진흥회, KODITS 등과의 온·오프라인 협력을 통한 성과 확대 추진
식품·생활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유통망, 인플루언서 등 현지 협업 기반 진출 · 요르단 소비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 물품 구매 성향 증가세 활용 · 온·오프라인 유통망과의 협업을 통한 판촉전,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활용
자동차·자동차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차·A/S부품 동시 공략, 전기차 생태계 조성 관련 기자재 진출 · '21년 엔데믹 이후 구매력 증가에 따른 중고차·부품 교체 수요 활용 · '22년 전기차 도입 폭증에 따른 배터리 A/S, 충전기 설치 시장 등 주목
전력·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 효율화 등 요르단 정부 정책 의제 활용 · 현지 발전소의 기자재 교체·업그레이드 수요, ESS 등 에너지 효율화 관련 신규 기자재 수요 등을 반영한 진출 추진
ICT·스마트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르단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ICT·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 현지 서비스 사업자, 통신 사업자 및 시스템·S/W 전문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수주, 기술·노하우 전수 등
바이오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장비, 미용의료 관련품 등 현지 수요 품목 공략 · 인공호흡기·모니터 등 현지 수요가 높은 의료장비를 중심으로 관련 인증(CE, FDA, FSC 등)을 취득한 기업들의 진출 기대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형 납품(농기자재) 및 중장기 투자 협력(스마트팜) Two-Track 지원 · 펌프·모터 등 농기자재, 센서 등 IoT 기기 등 기자재 납품 추진 · 한국-요르단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 간 기술 및 투자 협력 지원

- 내·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가능성 확대
- 주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전력 강화 요인을 활용한 국방·보안 분야 진출 추진
- 수자원 개선, 디지털 전환, 전력 수출 등 현지 정부 아젠다 활용한 진출 지원
-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납품 지원 일변도에서 탈피, 공동연구·OEM 등으로 파트너십 다각화

3-1. (국방·보안) 팀 코리아 활용을 통한 납품 성과 확대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시리아·레바논 등 인근국 정세 불안 → '22년에 전년 대비 요르단 국방예산 지출 증가(3.5% ↑)
- * 요르단 국방비 규모는 인구수 대비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우디 등에 이어 6위 수준
- 요르단 경찰청, JODDB(요르단 방산개발청)는 대외협력을 통한 군·경 조직 현대화에 적극적
- * JODDB는 타국 방산기업과의 JV를 통해 자국 내 무기 생산체계 구축 및 기술 습득 등 추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시리아 내 ISIS 세력 잔존, 요르단-시리아 국경에서의 마약 밀수로 인한 교전 발생 등 인근국 및 요르단 접경지대에서의 긴장 고조
 - * 인근국 레바논에서의 테러 발생, 이-팔 분쟁 지속 등으로 요르단은 주변국 안보 이슈에 민감
 - ** '23년 1~9월에 요르단군은 시리아에서 날아온 마약 적재 드론을 총 9번 격추하였음
- 인접국 정세 불안을 고려, 요르단 국방부는 최근 국경 수비대의 능력 향상 및 장비 현대화를 기치로 육군 현대화 정책 추진
 - 중·소형무기, 군수품, 통신기기, 대테러 장비, 무인항공기 등 수요 보유
 - * 요르단 최대 무기원조국은 미국으로 '18~'22년에 헬기·미사일 등 4.25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받았고, '23년에는 미국 F-16 12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국방 무관·대사관(공관), 방위산업진흥회·KODITS(국내 기관), 중동 무역관 협의체(해외조직) 등 협업체계를 활용한 장·단기 납품 성과 확대
 - KOTRA-공관-방진회-KODITS 등으로 구성된 국내 기업 지원 협의체를 통해 발주처 수요 파악, 국내 기업 아랍어 홍보 영상 제작, 핀포인트 상담 등 추진
- 요르단 국방 전시회·포럼(AIDSTEC), KOTRA 암만 무역관 방산보안 사절단 및 요르단 정부 발주 입찰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현지 수요 품목 납품 지원
 - '23년 9월 중동지역 방산사절단에 요르단 포함, JODDB 등과 B2B 상담 진행
 - * (현지 수요 품목) 대테러 장비, 국경 보안 감시·탐지·차단 시스템, 무인항공기(UAV), 보안장비, Jam Explosives(원격폭발물), 군 통신·전자장비 시스템 등

- 요르단 국방부, 방산개발청, 에이전트 등과의 G2G 및 B2G 분야 한-요르단 방산·군수 협력 기반 강화

우리 기업 협력 사례 ('23년 주요 방산 프로젝트)

- (국내 A사) 2023년 총기 부품 납품 및 요르단 방문을 통한 시험 발사(5월) 완료 → 추가 수요 물량 견적(US\$ 70만) 진행 및 수출 방식(CKD 유력) 협의 지원
- (국내 B사) 요르단 방문 지원을 통한 120mm 전차탄 시험 발사(6월) 완료 → RFP 취득 및 요르단 관계자 방한 등 수주 지원 활동 지원

3-2. (식품·소비재) 유통망·인플루언서 등 현지 협업 기반 진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3년 요르단 소매시장 판매 규모 전년 대비 4.5% 상승
-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 증가로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마케팅 효과 증대
 - * 요르단 이커머스 시장 규모 : ('21) 1.6억\$ → ('22) 1.8억\$ (16.7% ↑)
- 한류 콘텐츠 등 인기에 힘입어 한국 식품·소비재에 대한 요르단인들의 인지도 상승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물품 구매 증가, 우편 인프라를 활용한 배송주문 등 신규 이커머스 플랫폼 런칭 규모 증가
 - * 요르단 이커머스 이용자 수는 '27년까지 인구의 절반인 4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온·오프라인 연계형 옴니채널 유통시장으로의 변화 속에서 한류(K-팝, K-드라마) 영향에 따른 한국산 생활소비재 수요 증가
 - * (식품) 최근 3년간 한국산 인스턴트 라면 수출 연평균 60% 증가
 - ** (화장품)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 '23.1~4월 한국→요르단 수출 106% 상승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전략) 민간 협업(현지 인플루언서 및 온·오프라인 유통망)에 기반, 시장성 검토, 온라인 홍보, 현지 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현지 유통망 진출 확대
 - 국내 식품·소비재의 현지 샘플 테스트, 현지 온라인 매장 상품 등록,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판촉 행사,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한 입점 추진
- (품목) 식품, 화장품, 미용의료제품 등 현지 인지도 상승 품목 공략
 - (식품) 대형 마켓에 라면·조미료·만두 등 한국 포장식품 입점이 늘고 있으며, 중산층을 중심으로 고품질 유기농·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 (화장품) 유럽·미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 속, 한국산 스킨케어, 립스틱·립틴트 등 메이크업 제품 등이 현지 아시아 화장품 전문점 중심으로 점차 확산

우리 기업 협력 사례 ('23년 요르단 한국식품 판촉전)

- (개요) 현지 한국식품 관심을 반영, 대형 식품 유통망(Cozmo, Family Basket)과의 협업을 통한 국내 진출 유망 기업 선발 및 온·오프 판촉전 개최
- (규모) 국내 기업 23개 사 입점 지원
- (판촉전 일시·장소) '23.8.10~13 (Cozmo) / '23.8.17~19, 8.24~26 (Family Basket)
- (지원 내용) 사전에 현지 유통망과 국내 식품 기업 간 온라인 상담을 통한 입점 유망 기업 선정 후 현지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및 오프라인 판촉전 개최
 - 판촉전에는 국내 제품 전용 판매대를 설치하고 유명 인플루언서 참여 유도로 홍보 효과 확대
- (성과) 국내 식품 유망 기업 13개 사의 현지 유통망 입점 (직접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3-3. (자동차·부품) 중고차·A/S부품 및 전기차 관련품·서비스 진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자동차) 요르단은 한국의 주요 자동차 수출 시장 중 하나로, '23년(1~5월) 요르단의 전 세계 자동차 수입 중 19%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2위)
- (자동차부품) 요르단 자동차부품 수입대상국 1위가 한국 ('19~'23년(1~5월) 5년 연속)
- (전기차)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차 수요 증가로 '23년(1~5월) 전기차 수입 대수 전년 대비 105% 증가, 요르단 전기차 판매 규모는 '23년에 45% 이상 증가 전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자동차·부품) '22년 요르단 자동차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11.3억 달러로, 이중 한국산 차량 수입 비중이 23.4%로 2위 차지
 - 한국산 차량에 사용된 부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한국 A/S부품 기업들의 대요르단 진출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 2019년부터 2023년(1~5월)까지 요르단 자동차부품 수입대상국 1위는 한국
- (전기차) 글로벌 유가 상승,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23년(1~5월)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105% 이상 증가
 - '21년 이후 요르단 전기차 통관 규모는 약 250% 증가, 반면 내연기관차의 통관 규모는 약 15% 감소
 - 요르단은 가솔린 차량에 91%, 하이브리드 차량에 55%의 관세를 부과하나, 전기차는 이보다 대폭 낮은 10~15% 관세를 부과
 - 단, 민간의 전기차 수요 대비 충전소 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전기차 구매자들은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활용
 - * 요르단 전기차 충전기 주요 수입국은 중국(Alpha Chargers),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 (화물차) '23년 8월, 요르단 정부는 자국 내 노후화된 트레일러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에 대해 일반관매세 및 특별세 면제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중고차·부품 및 전기차 기자재 유통망 대상 수요 발굴 및 상담 추진
 - (중고차) 인천·부산지원단 등 중고차 기업 다수 소재 지원단 협업을 통한 상담회에 참여, 바이어 수입 희망 중고차종 상담 및 수입 대상 매물 사전 확인
 - (자동차부품) 국내외 자동차부품 전시회를 활용한 국내 중·대형 애프터마켓 부품 기업 상담, OEM 부품의 경우 인근국 연계 수출 가능성 사전 타진
 - (전기차) 향후 2~3년 내 유지보수 수요 증가를 고려한 전장부품,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 및 전기차 A/S 서비스 등 분야 진출
 - (화물차) 요르단 트럭 노후화에 따른 차량 교체 수요 공략

중국산 전기차 수입 폭증에 따른 향후 A/S 수요 공략 필요

- '22년 중국산 전기차 'Volkswagen ID4'의 요르단 판매량은 전체 신차 판매량의 60% 이상
- 요르단 수입 기업은 중국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은 동 차량을 정가 대비 20~30% 할인가에 판매
- 단, 동 차량들은 공식 에이전트를 통한 수입이 아니어서 제품 보증, A/S 서비스 등이 불가한바, 향후 5년 이내에 배터리 점검·교체, 전장 부품 교체 등 A/S 수요 폭증 예상 → 국내 관련 부품·플랫폼·서비스 기업의 진출 유망

우리 기업 협력 사례(중고차·차부품 및 전기차 충전기)

- 중고차 수출 전문기업의 대요르단 수출 증가 지원
 - (경과) 요르단 유력 바이어 2개사와 국내 기업 R사 간의 오프라인 미팅 및 매물 확인을 위하여 '23년 3월, 5월, 7월 등 총 3회에 걸쳐 개별 방한 바이어 지원 실시
 - (성과) '23년 4분기에 약 200만 달러 이상 수출 성약 예상 (지속 논의 중)
- 한-요르단 전기차 충전 인프라 파트너십 상담회(온라인, '23.10월)
 - 국내 기업 7개사 및 유력 바이어 7개사 간 EV 충전기(완속, 급속) 관련 기자재 협력 상담

3-4. (전력·플랜트) 에너지 효율화 등 정책 의제 분야 진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최근 요르단 정부는 2020~2030 에너지 전략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오일 셰일 등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를 목표로 여러 프로젝트 추진 중
- 원유·가스와 관련하여 이집트·이라크 등 타 국가와의 활발한 파트너십 구축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요르단 정부는 GDP의 9%를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대외 의존도(92%)를 낮추고자 중장기 국가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원 비중을 '3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출력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전력망 관리능력 제고, 그리드 안정화 및 관련 기자재(ESS 등) 확보에 관심 다대

〈요르단 주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연	에너지 종류	발전소 명	규모
1	태양광	Quweira Solar Power Plant	103MW
2		Baynouna Solar Power Plant	200MW
3		Risha Solar PV Park	50MW
4		Al Manakher Solar PV Park	52MW
5		Shams Ma'an Solar Power Plant	160MW
6		Al Ward Al Kabir solar PV plant	66MW
7		Al Mafraq Solar PV Park	60.9MW
8	풍력	Tafila Wind Farm	117MW
9		Maan Wind Farm	80MW

자료: 에너지광물자원부

- 최근 요르단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달성하였으나 잉여 전력이 발생하면서, 이집트, 사우디, 이라크, 레바논 등 주변국으로의 전력 수출을 추진 중

〈요르단의 주변국 전력 수출 계획〉

연	주요 내용	시행년도
1	이집트와 요르단 송전망 관련 계약 갱신 (요르단-이집트 간 전기 상호 교환 규모를 1,100MW로 확대)	2021~2025
2	요르단-팔레스타인 간 송전망 확대 (80MW 규모로 전력망 확대)	2023~2025
3	요르단-이라크 송전망 건설 (1차-150MW 규모, 2차-1,000MW 규모)	2020~2025
4	요르단-사우디 송전망 건설 (1차-500MW 규모, 2차-1,000MW 규모)	2020~2023

자료: 요르단 전력공사

- 또한 요르단은 전력망에서 전력 누수 방지, 에너지 효율 증강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 추진을 병행

〈요르단 전력 효율화 프로젝트〉

주요 내용	시행년도	담당 부처
국가 송전망 안전성 강화	2020~2030	요르단 전력공사
스마트 전력 계량기 도입	2020~2022	에너지광물규제위원회
요르단 상업 및 가정용 건물 에너지 효율성 표기	2021	에너지광물자원부
요르단 가로등 전력 효율이 뛰어난 LED 교체 사업	2020~2030	에너지광물자원부
모든 전기 장치에 에너지 효율 표준 규격 도입	2020~2030	요르단표준계량원

자료: 에너지광물자원부, 요르단 전력공사, 요르단 표준계량원, 에너지광물규제위원회

- 요르단은 인접국과 에너지 관련 파트너십 도모 중
 - '23년 5월, 요르단-이라크 협약 갱신을 통해 '23년 6월부터 1년간 하루에 1만 5,000배럴의 원유가 이라크에서 요르단으로 수출
 - '23년 6월, 요르단과 이집트는 LNG(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 시설 공동 이용 및 요르단으로의 천연가스 공급 등 2개 프로젝트에 합의

〈요르단-이집트 간 천연가스 협력 프로젝트〉

연	계약 주체	상세 내용
1	이집트 천연가스 지주회사(EGAS)- 요르단 전력공사(NEPCO)	· 이집트는 '25년까지 요르단 아카바 Al-Sheikh Sabah Al-Ahmad Al-Sabah 터미널에서 부유식 저장 재기화 장치(FSRU)를 사용 · 이집트의 LNG 저장 및 재기화의 운영 비용을 줄이고 양국 가스 공급·유통 활성화를 목표로 함
2	요르단-이집트 FAJR (천연가스 운송 공급회사)	· 이집트가 요르단 아카바 지역에 천연가스 공급 (시간당 9만㎥ 규모)

자료: 현지 언론 보도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요르단 및 인근국 주요 전력·플랜트 프로젝트에 참여
 - KOTRA는 주재국 공관 협조로 발주처 간담회 개최 등 국내 기업 수주 지원 활동 및 국내 수출입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금융 지원 병행 추진 중
- 요르단 내 발전소의 기자재 교체·업그레이드 수요를 반영한 전력기자재 수출
 - 요르단은 변압기, 터빈, 트랜스미션, 케이블 등 각종 전력기자재 수입 활발
 - * 전력기자재 관련 품목 수입 규모(US\$ 백만): ('21) 178 → ('22) 207 (16.2%↑)
 - 현지에 이미 진출한 한전 계열사 발전소 기자재 교체 수요를 활용한 대·중소 동반 진출 고려
 - * KOTRA 암만 무역관에서는 매년 현지 발전소 등과 협업하여 전력기자재 사절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 참가를 통해 현지 발전소·에이전트 상담 가능

<요르단 전력기자재 관련 품목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연번	HS CODE	품목 상세	2020년	2021년	2022년
1	8504	변압기 및 관련품	59	56	71
2	8544	케이블 및 관련품	68	65	77
3	8523	축전기 및 관련품	22	33	34
4	9028	계량기 및 관련품	17	12	14
5	8502	발전기 및 관련품	8	12	11
합 계			174	178	207

자료: Global Trade Atlas

-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분야 기술 고도화 등 정책의제를 반영한 현지 E(환경)/S(사회) 부문 KSP 및 ODA 사업 수행

우리 기업 협력 사례 (KSP 2022/23 '요르단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 (개요)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발주한 '요르단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를 국내 산·학 합동 연구단이 '22년 말부터 '23년 10월까지 수행
- (성과) 요르단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인증제도 수립방안 마련,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법규 시행방안 수립, 현지 서베이 등을 통한 관련 DB 구축 및 분석방안 수립, 요르단 정부 관계자 초청을 통한 방한 연수 실시 등

우리 기업 협력 사례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진출 지원)

- (개요) 암만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및 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 고효율 히팅 시스템, 바닥 난방 시스템 등 EMS 플랫폼의 현지 진출 추진
 - * (기축 건물) 바닥 난방 솔루션 도입 / (신축 건물) 히트펌프·축열조 시스템 구축
- (추진 경과) 국내 엔지니어링 A사와 현지 유력 EPC 기업 2개 사와의 미팅 완료
 - A사는 '24년 지사화 사업 참여를 통해 현지 EPC와의 사업 모델 구체화 및 기자재 납품, 기술 교류 등 추진 예정

3-5. (ICT·스마트시티) 요르단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파트너십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요르단의 인터넷 속도는 아랍 지역에서 4위 수준이며, 요르단 정부는 공공-민간 서비스의 디지털화, 사회 전반의 디지털 인프라 도입,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혁신 등 추진 중
-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전자 결제 시스템, 5G, 사물인터넷, 보안 등 각 분야 디지털화 및 효율화 추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요르단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통해 관련법·규정 개정, 시범사업 마련, 정부 종합 포털 구축, 정부-민간 양방향 서비스 등 추진
 - * 요르단의 국가전략 및 2021~2025 이행계획(2021~2025 Implementation Plan)은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공

〈요르단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도입 현황〉

구분	상세 내용
5G	- 최근 요르단 통신규제위원회의 지시로 '23년까지 5G 인프라 도입을 목표로 주파수 대역폭 설정, 각 통신사 대상 5G 추진 인센티브 지원 및 각종 테스트 수행 - Zain Jordan, Orange Jordan, Umniah, Huawei Jordan 등 주요 통신사 및 기업들은 5G 모바일 네트워크 테스트, 연관 IoT 기술 개발, 실무자 교육 등 전개 중
사물 인터넷	- '20년 사물인터넷 도입 지침을 발표, 민간 주도로 관련 인프라 도입 유도
사이버 보안	- 요르단에서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사이버 보안 이슈가 증대 - '2018~2023 요르단 사이버 보안 전략'을 기반으로 기술 도입 중

구분	상세 내용
블록체인	- 사이버 보안을 위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추진 중. 특히 정보 관리 분야에서 데이터 조작 방지를 목적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예정 - 요르단 통신위원회는 블록체인 관련 부서를 설립, 2021년 국가 신원 조회 시스템 및 은행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 실용화를 모색 중
오픈소스 솔루션	- 요르단 정부는 모든 부처에 오픈소스 솔루션 도입을 지시 - 각 부처 관련 입찰의 최소 50% 이상 오픈소스 솔루션 기술을 활용하도록 함
클라우드	- 중소기업 및 IT 노동시장의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민간에 제공할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 중
전자결제 시스템	- 요르단 중앙은행 및 시중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추진 * '23년 2월 Arab Bank, Blink 등 요르단의 주요 은행들은 Apple Pay 서비스 제공 개시
디지털 ID	- 요르단 정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ID 카드를 배포 중 - 디지털 인증 및 신원 인증 기술도 도입 중

자료: 디지털경제창업부

- '23년 8월 기준, 총 960개의 정부 서비스가 디지털화·자동화되어 목표 대비 40%의 전환율을 달성하였음
 - * 정부 서비스 통합 애플리케이션 Sanad는 현재 500여 개 서비스를 제공 중
- 암만의 알 무카발린(Al Muqabalayn) 지역과 쿤 알리아 국제공항 인근에 디지털 서비스를 결합한 종합 정부 서비스 센터 설립 예정
 - * 2023년 말까지 이르비드(Irbid), 제라쉬(Jerash), 아카바(Aqaba), 타필레(Tafileh), 마안(Maan)에 5개 유사한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내년에 설립될 예정
-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는 정보 사용의 투명성 보장에 기반하여 통합 국가 정보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고 있음
 - * 새로 구축 예정인 'Open Government Data Platform'을 통해 이용자들은 다수 정부기관의 정보를 무료 조회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발굴 가능
- 요르단 수도 암만과 물류 집적지 아카바는 스마트시티로의 변화를 선언하고 외부 전문가 그룹과 함께 세부 프로젝트 수립에 돌입
 - 암만 시는 '19년에 발표한 '암만 녹색도시 실행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교통 정체·홍수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로드맵을 수립 중
 - 아카바시는 첨단 항만 운영 시스템 개발, 다목적 항구 개발 등을 추진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요르단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도입 및 관련 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 참여
 - 공기업,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전자정부 수요처 등 프로젝트 발주처와의 웨비나, 상담 등을 통한 수요 파악 지원
 - 필요시 현지 서비스 사업자, 통신 사업자 및 시스템·S/W 전문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수주, 기술·노하우 전수 등 병행
- 암만·아카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국내 ICT H/W·솔루션 기업 참여
 - * 단, 외국 기업 참여가 가능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국제 금융기관, 개발기구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로 한정되므로, 국내 기업은 현지 IT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참여 필요

〈암만시 스마트시티 주요 프로젝트(예정)〉

프로젝트명	개요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도입	· 시내 교통 흐름 개선을 목적으로 ITS를 설치하고 차로의 차량 수, 보행자 수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의사 결정 등에 활용
스마트 노상 주차 시스템	· 주요 도로의 주차 공간을 정의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한 공간을 표시, 등록 차량이 해당 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함 ·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결제, 과태료 부과 등
중앙 집중식 지리 정보 시스템(GIS)	· 도시 내 토지 사용에 대한 기준 데이터를 캡처하고 보관할 중앙 집중식 GIS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자료: 디지털경제창업부

요르단 ICT 분야 주요 입찰 관련 웹사이트

명칭	웹사이트	주요 입찰 분야
암만시 입찰정보	gamtenders.gov.jo	암만 내 건설, 에너지, 전력, 수자원, 폐수처리, 교통 등
디지털경제창업부 입찰정보	modee.gov.jo/en/Modules/Tenders	주로 모바일 등 통신 관련 인프라 분야
요르단 온라인 e-조달 시스템	joneps.gov.jo/pt/main.do	전 분야 망라 (검색 옵션에서 'International' 필터를 통해 외국 기업 입찰 가능 건 검색)

우리 기업 협력 사례 (ATM 기기 현지 진출)

- (신규 공급처 발굴 지원) '22년에 국내 ATM 기기 수입을 하였으나 '23년 수입을 중단한 요르단 바이어의 신규 국내 공급처 발굴 지원
 - 국내 지방지원단 협조로 국내 ATM 제조사 H사를 바이어와 연결, 거래 협의 지원 및 '23.10월 바이어의 개별 방한 지원으로 성약 추진

3-6. (바이오헬스) 진단장비, 미용의료 관련품 등 현지 수요 품목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요르단 의료관광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완전한 회복세, 요르단 정부는 병원과 의료 서비스에 대해 적극 투자 유치 중
- 제약산업은 요르단 5대 수출 산업으로서 요르단 정부는 자국 내 공장시설 투자 확대, 고효율 생산라인 도입, R&D 투자 확대, 타 국가와의 파트너십 확대 등 추진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요르단은 MENA지역 의료관광 분야에서 1위국이자 세계 10대 국가 중 하나로 '22년 이후 의료관광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음
 - '22년 요르단 방문 의료 관광객 수는 약 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
 - 의료관광 활성화로 병원·의료기관 건설 프로젝트가 재개되거나 신규 추진 → 관련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수요 증가 예상
 - * 요르단에는 100개 이상의 종합병원이 있으며, 이 중 60%가 민간 병원으로서 총 투자 규모는 56억 달러, 고용 직원 수는 약 95,000명에 달함
 - ** 암만시 헬스케어단지 조성(4억\$), 300개 병실 규모 종합병원 건설(2억\$) 등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기존에 지연된 3개 프로젝트도 재개 예상
- '23년 1분기 요르단 의료용품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 의료산업/의료용품 분야의 수출 증가율은 요르단 산업 분야 중 1위를 기록
- 요르단은 시중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고 의약품 수입 제한 조치를 철폐했으며 외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나섬
 - '23년 1~6월 기간 중 요르단 식품의약품국은 호흡기질환 치료제, 신경계 치료제 등 총 391개 의약품의 가격을 최저 2%에서 최대 47%까지 인하
 - '23년 7월, 정부는 사전 승인 없이도 일부 해외 의약품의 요르단 반입을 허용
 - 요르단, UAE, 이집트, 바레인 4개국은 아랍지역기금의 지원 아래 '23년 6월 제약 시설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
 - * 요르단 정부는 향후 10년 이내에 제약 분야에 약 1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
- 요르단 청년층 중심으로 뷰티 성형 관심 증가 및 미용 시술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 ('21년)로 보톡스·필러·쓰레드 등 수입 증가

- 요르단 인구 1,000명당 미용 성형 수요 건수가 중동국 중 3위를 기록
 - * 요르단 내 인기 성형수술 : (여성) 코 성형, 지방 흡입, 유방 확대 / (남성) 안면 윤곽, 모발 이식, 지방 흡입 등
- 보톡스 등 미용 시술용 약품에 경쟁이 격화되면서 보톡스 풀페이스 평균 가격이 200~350달러선으로 낮아졌고, 이에 수입도 함께 증가
 - * 요르단 기타 의약품(보톡스 등) 수입 규모(US\$ 백만): ('20) 424 → ('22) 498 (18% ↑)
- 최근 요르단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 수요가 연평균 8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유럽·아시아 대비 저렴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활용한 치아 치료·관리 수요가 증가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유망 품목) 성형용품, 치과제품 분야에서 유망 품목은 아래 표와 같음

〈요르단 의료기기·기자재 분야 유망 품목〉

분야	유망 품목
디지털 의료장비	· PACS, 스마트 맥박 산소 농도계, 전자 건강기록 솔루션, 3D 진단 정보 솔루션, 내시경용 디지털카메라, 장애인용 디지털 재활 장비, 디지털 X선 시스템 등
성형·미용	· 초음파 지방 흡입 장비, 필러, 보톡스, PDO 실 등
치과제품	·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 초음파 스케일러, 덴탈 니들, 골이식·인공치아, 보철물 등

자료: KOTRA 암만 무역관 자체 조사

- (진출전략) 상기 수요 품목을 중심으로 의료 장비·기술 진출 가능성 타진
 - 요르단 의료산업은 인허가 기관의 규제 장벽이 높고 제품 등록·판매 과정에서 에이전트의 역할이 큰 분야로, 신뢰 가능한 유력 에이전트 발굴이 중요
 - 요르단 주요 병원 구매 담당자 핀포인트 상담 등 현지 진출 기회 활용

우리 기업 협력 사례 (현지 미용의료제품 시연회 및 국내 수출상담회 참가)

- (요르단 현지 미용의료제품 시연회, '23.5월) 국내 기능성 화장품 핀포인트 세미나 및 국내 보톡스 등 미용의료제품 시연회인 「Korean Derma Week 2023」 개최
 - 요르단 의약·화장품 유통망 및 성형외과 의사 약 100명 참여
 - 국내 기능성 화장품 10개 사의 제품 홍보 및 시연, 현지 유통망과의 화상상담 진행
- (글로벌 바이오파마 플라자, '23.9월) 유럽·북미 의약품 전문 수입유통사를 초청하여 국내 기업 12개사와 암 치료제, 투석 및 혈액 순환 장애 치료제 등 품목 납품 관련 면담 실시
- (강원의료기기전시회, '23.9월) 치과기기 및 용품, 진단 및 의료기기 분야 전문 수입 기업과 국내 기업 10개사 간 오프라인 상담 진행

3-7. (농업) 단기 납품(농기자재) 및 중·장기 투자 협력(스마트팜) Two-Track 지원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요르단 대형 농장들은 고품질 비료, 농업용 기자재 등을 단기 내 조달하려는 수요 보유
- 요르단 정부는 물 부족, 비용 증가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 농업 현대화를 추진 중
-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요르단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기술 협업 희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요르단 농업 부문은 심각한 물 부족, 노동력 부족, 운영 비용 증가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어 정부는 현안 해결을 위해 스마트팜 도입 추진
 - '25년까지 수자원 관리 효율성 향상, 관개 시스템 개선, 농업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한 자국 농업 현대화 추진
 - * 요르단은 난민 수용에 따른 인구 증가로 1인당 가용 수량이 '21년 148㎡에서 '25년 95㎡로 악화 예상
 - ** 농업 부문 숙련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4%에 불과, 산업 유지를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
 - *** 글로벌 고유가로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 농업 분야 수도세·전기세 등 운영 비용 증가
- 요르단 시장은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 초기 단계로 대외 협업 수요 다대
 - 요르단에는 30여 개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이 활동 중이며 펌프·모터 등 농기자재, 센서 등 IoT 기기, 원격제어 프로그램 등 S/W 구매에 관심
 - * 요르단 내 생산시설이 전무한바, 스마트팜 구성에 필요한 기자재는 100% 수입에 의존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전략) 단기간에 납품이 가능한 농기자재 제품 진출 및 중·장기 현지 스마트팜 솔루션 투자 진출 등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추진
 -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은 스마트 기술 이외에 농기자재에 대한 수요를 함께 보유
 - 온라인 상담, 오프라인 전시회 미팅 주선 등을 통한 단기 내 납품 추진
 - 중장기 투자 진출 관련, 요르단 국책 농업 연구소와 협업, 데모 온실 부지 제공 및 솔루션 유효성 검증 등 기술 지원 실시

▶ 요르단 스마트팜 기업들의 對韓 수요 ('23.1월 방문 면담 결과)

- (A사) 펌프류, IoT 센서, 농업용 기계 장비 및 한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현지 스마트팜 설치·서비스 기업 공동 운영 등
- (S사) IoT 분야 장비 연결 기술, 컨트롤러, 모터, 펌프, 센서 등
- (J사) 우량 종자, 친환경 방제 기술, 농업용 플라스틱 기자재

우리 기업 협력 사례 (한-요르단 스마트팜 파트너십)

- (개요) 국내 기업 피칭, 요르단 측 수요 소개를 위한 온라인 웨비나 개최 및 온라인 B2B 상담 주간 운영을 통한 양국 기업 간 협력 가능성 모색 ('23.4~5월)
- (규모) 웨비나 참여 총 72개 사(한국 38개 사, 요르단 34개 사), 상담 참여 총 19개 사(한국 8개 사, 요르단 11개 사)
- (성과) 후속 지원 등을 통해 한-요 기업 간 MOU 4건(1,100만 달러) 체결, 투자 논의 중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의약품 제조기기	선정사유	· 요르단의 제약산업은 요르단 3대 수출산업 중 하나 · 암만시 등 각 지방정부는 외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산업 진흥정책을 추진 중
	시장동향	· 요르단 의약품 제조사는 14개 사에 달하며 총 제조시설 수는 180개 이상 · 이들 기업은 주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 공급하며, 제약 정체 및 압축 기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 '22년 기준 요르단 내 수입점유율은 중국(37.4%), 이탈리아(13.9%), 튀르키예(11.4%), 독일(11.3%) 순
	진출방안	· 현지 A/S에 유능한 요르단 대리점(수입업체) 물색 필요
품목명 2		
절수형 샤워기	선정사유	· 물 부족 국가인 요르단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물 절약을 위한 절수 제품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절수 관련 제품이 유망함
	시장동향	· 절수형 샤워기는 가정 폐수의 양을 줄이고 물을 데우는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 · '20~'22년에 수입 증가세를 보이며 '22년 수입액은 1,265만 달러
	경쟁동향	· '22년 기준 요르단 내 수입점유율은 중국(59.5%), 튀르키예(18.2%), UAE(5.7%), 이탈리아(4.1%), 스페인(2.0%), 이집트(1.6%) 순
	진출방안	· 인증 취득 제품의 경우 현지 표준계량기관(JSMO)을 통한 인증 재검 필요 · 건설/하우징 분야 에이전트를 통한 진출 모색 등
품목명 3		
MRI (자기공명영상장치)	선정사유	· 요르단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각 병원에서 주요 디지털 의료 장비인 MRI의 활용이 증가 · 요르단 내 방사선 전문의, 방사선사, 방사선센터 등 인적/물적 인프라 규모 상승
	시장동향	· Closed MRI가 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나 최근 Wide-Bore MRI(25%), Open MRI(15%)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해상도가 높고 스캔 시간을 최소화한 MRI 장비 도입 수요 증가 · '20~'22년 꾸준한 수입 증가 추세를 보이며 '22년에는 전년 대비 수입액이 10.7% 증가한 883만 달러 기록
	경쟁동향	· '22년 기준 요르단 내 수입점유율은 네덜란드(38.2%), 독일(32.8%), 미국(18.8%), 일본(5.4%) 순
	진출방안	· 요르단 방사선학회 연례 기술회의 등 현지 홍보가 가능한 행사에 참여하여 한국산 제품의 차별성 홍보
품목명 4		
초음파 지방흡입기	선정사유	· 요르단 성형/미용시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남녀 공통으로 지방흡입술 수요 증가 중으로 'Ultrasound Cavitation System'을 활용한 비교적 간편한 방식의 지방흡입술이 인기

	시장동향	· 주요 소비층이 중·상류층으로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최상의 시술 결과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비를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수입 규모 지속 증가 중
	경쟁동향	· '22년 기준 요르단 내 수입점유율은 미국(30.8%), 독일(16.0%), 중국(10.9%), 멕시코(7.9%), 영국(5.2%) 순
	진출방안	· 한국은 미용과 화장품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국가라는 현지 이미지가 자리를 잡고 있어 우수 에이전트 발굴 통한 진출 필요
품목명 5		
금고	선정사유	· 요르단은 금융업 발달이 저조하여 인구 1,000만 명 중 약 60~70%가 은행 계좌 미보유. 상업·개인 분야 금고 사용 비중이 높음
	시장동향	· 연간 수입 규모는 약 100만~200만 달러 규모이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양호해지면서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호텔/리조트 건설 프로젝트 확대가 예상되어, 동 품목 수요도 동반 상승이 예상 · '18년 이후 한국이 요르단 금고 수입국 순위에서 늘 3위 이내를 유지 · '20~'22년 꾸준한 수입 증가 추세를 보였고 '22년엔 전년 대비 수입액이 36% 증가하며 165만 달러 기록
	경쟁동향	· '22년 기준 요르단 내 수입점유율은 중국(27.4%), 한국(20.8%), 불가리아(11%), 홍콩(9.7%), 독일(9.0%), 프랑스(6.4%) 순
	진출방안	· 향후 추진될 대형 호텔·리조트 프로젝트 대상으로 납품하거나, 화재, 강제 진입 저항, 보안 시스템 인증 등 각종 인증서 취득
품목명 6		
가정용 정수 시스템	선정사유	· 요르단은 세계 두 번째의 물 부족 국가로, 1인당 물 공급량은 연간 136㎥ 수준에 불과 · 지방정부에서는 수처리 공정을 통해 물을 정제하나 음용에 적합하지 않은 오염물질이 포함되기도 함
	시장동향	· 가정용 정수 서비스는 수처리 기업에서 제공하는데, 요르단에서는 외국 브랜드의 에이전트 기업들이 주로 가정용/산업용 정수 서비스를 제공 · '22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6% 상승한 1,317만 달러 기록
	경쟁동향	· '22년 기준 요르단 내 수입점유율은 중국(26.1%), 베트남(14.1%), 대만(13.0%), 튀르키예(11.4%), 인도(5.6%) 순
	진출방안	· Safa water, Arab Engineers 등 요르단 내 수처리 기업들에게 자사 브랜드의 공식 딜러 파트너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출 가능
품목명 7		
콘크리트 혼화제 (Concrete Admixtures)	선정사유	· '23년 요르단 내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증가 중 · 리드믹스(read-mix) 콘크리트는 요르단에서 2021년에 총 400만㎥ 생산된 바 있는데 동 품목은 콘크리트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
	시장동향	· 요르단의 더운 날씨 특성상 콘크리트를 열과 마모에 강하게 만드는 초가소제(superplasticizer)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됨 · '20~'22년 꾸준한 수입 증가 추세를 보였고 '22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54.8% 증가한 1,837만 달러 기록
	경쟁동향	· '22년 기준 요르단 내 수입점유율은 러시아(33.0%), 사우디아라비아(26.4%), 중국(23.8%), 아랍에미리트(6.6%), 카타르(2.8%) 순

	진출방안	Kingdom Concrete, Lafarge, Manaseer 및 Zhuiry 등 요르단 주요 콘크리트 생산기업의 수요 파악이 필요함. 참고로 BASF 및 Al-Faiha와 같은 건축 자재 회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주요 콘크리트 생산업체에 콘크리트 혼합제를 공급하고 있음
품목명 8		
발광 다이오드 (LED, Light-Emitting Diode)	선정사유	· 요르단 암만시는 가로등의 에너지 절약형 LED 장치 교체 진행, 향후 유사 프로젝트 지속 추진 기대 · 기존의 조명 대비 적은 전력 소모, 긴 수명, 다양한 색상,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LED 조명에 대한 요르단 소비자의 관심이 높음
	시장동향	· '20~'22년 한국의 LED 조명 수출액은 3,200달러에서 87,000달러로 증가
	경쟁동향	· '22년 수입시장 점유율은 중국(50.1%) 미국(26.7%) 이탈리아(10.0%) 스페인(3.6%) 순
	진출방안	· 요르단 정부의 LED 교체 프로젝트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
품목명 9		
원심펌프 (Centrifugal Pump)	선정사유	· 요르단에서는 수돗물이 1주일에 1~2회만 공급되므로 요르단인들은 워터 펌프를 활용하여 물을 지붕이나 지하실의 탱크에 저장하고 사용 중. 따라서 워터 펌프는 요르단인들에게 필수 소비재임
	시장동향	· '20년부터 '23년까지 꾸준한 수입 증가 추세를 보였고 '22년에 전년 대비 수입액은 27.5% 증가한 1,798만 달러 기록
	경쟁동향	· '22년 기준 수입점유율은 이탈리아(29.1%), 미국(18.8%), 일본(14.0%), 중국(10.6%), 독일(5.8%) 순
	진출방안	· 국내 기업은 현지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유통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 제품의 현지 등록 및 마케팅, A/S 등 추진 가능
품목명 10		
콘택트렌즈 (Contact Lenses)	선정사유	· 젊은층을 중심으로 안경 대비 콘택트렌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시장동향	· 소비자의 65%가 여성이며 일반 하이드로겔 렌즈가 전체 피팅의 60.3%를 차지, 이외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31.3%), 하드렌즈(8.4%) 순 · 렌즈 유형 면에서는 구면 렌즈가 가장 많이 처방되었으며 매일 착용하는 일회용 렌즈가 2위를 차지 · '22년에는 전년 대비 수입액이 55.9% 증가한 225만 달러 기록
	경쟁동향	· '23년 4월까지 요르단 내 수입점유율은 미국(38.3%), 아일랜드(17.0%), 영국(10.5%), 한국(10.1%), 독일(5.0%) 순
	진출방안	· 한류를 활용한 광고, 카탈로그, 포장 등을 진행함으로써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 고려
품목명 11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선정사유	· CCTV 카메라는 지정학적 문제 및 테러 공격으로 인해 관공서 및 국방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 요르단의 디지털화 추진과 신규 산업구역 개발, 인접군 난민 증가로 인한 보안 위협 증가 등으로 CCTV에 대한 수요가 증가
	시장동향	· '19년부터 '21년까지 꾸준한 수입 증가 추세를 보였고 '21년에는 전년 대비 수입액이 6.9% 증가한 819만 달러 기록

	경쟁동향	· '21년 요르단 수입시장 점유율은 중국(68.0%), 일본(8.3%), 영국(4.0%), 한국(3.7%) 순
	진출방안	· 요르단 정부는 보안 문제로 비중국산 제품을 선호하므로 국내 기업은 CCTV 조달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고려
품목명 12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선정사유	· '21년 이후 요르단 전기차 통관 규모는 약 250% 증가, 내연기관차 통관 규모는 약 15% 감소 · '22년 요르단 전기차 통관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6배 증가
	시장동향	· 요르단 환경부, 교통부 및 안전, 이르비드, 자르카 등 주요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각 도시별 전기버스 운영 추진 · 암만시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차량 전체를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
	경쟁동향	· '22년 요르단 수입시장 점유율은 중국(69.1%), 한국(17.7%), 미국(7.7%), 독일(4.0%), 벨기에(0.5%) 순
	진출방안	· 요르단 자유무역지대에 쇼룸(showrooms) 설치 고려 · '인천 중고차-부품 수출상담회' 등 온/오프라인 상담 행사에 참여하여 요르단 바이어와 상담하고 매물 확인 진행 가능
품목명 13		
전기차 충전기 (EV Chargers)	선정사유	· 요르단 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로 파생상품인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
	시장동향	· 아직 요르단 내 전기 충전 인프라는 부족한 상태로 '23년 6월 기준 요르단 내 총 55곳의 전기차 충전소만 공식 운영 중 · '20~'22년 꾸준한 수입 증가 추세를 보였고 '22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한 4,655만 달러 기록
	경쟁동향	· '22년 요르단 수입시장 점유율은 중국(69.3%), 이탈리아(6.5%), 독일(5.9%), 오스트리아(2.8%), 튀르키예(1.5%) 순
	진출방안	·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 또는 전기차 정비센터 등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출 가능
품목명 14		
태양광 패널 (Solar panel)	선정사유	· 요르단은 자국 에너지원의 90% 이상을 국외에서 수입하며 이에 따라 요르단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 · 요르단은 태양 에너지원이 풍부한 국가이기에 높은 일조량으로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조건 보유
	시장동향	· '21년 기준 요르단에 공식 등록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수는 모두 256개에 달하며 이들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수도 암만을 중심으로 진행 · 농촌 및 격오지 마을의 분산형 태양광 발전 장치는 조명·양수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요르단 전체 가구의 약 15%가 휴대용 태양열 발전기를 활용한 온열(heating)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요르단의 연 태양광 패널 관련 용품 수입량은 '19년에 1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67% 감소한 이후, '21년에 약 1억 달러 수준을 회복
	경쟁동향	· '21년 수입시장 점유율은 중국(95.6%), 태국(2.7%), 스페인(0.5%), 싱가포르(0.4%), 사우디(0.3%) 순
	진출방안	·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기 위하여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제품 생산 공급망 다변화, 국내 그리드 기업과의 공동 진출 등 모색 필요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전기차 충전 서비스	선정사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러-우 사태 등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자동차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21년 기준 요르단 내 EV 차량은 21,500대를 넘어섰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시장동향	요르단에서는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민간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기 공급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 암만시는 친환경 차량용 무료 충전소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함
	경쟁동향	중국은 Alpha 충전기 브랜드를 내세워 59.2%의 수입점유율로 요르단 전기차 충전 시스템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 이외에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
	진출방안	최근 요르단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각 시·도 차원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주요 의제로 대두되면서 국내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 업체들이 정부 프로젝트에 턴키 방식으로 진입하는 등 B2G 차원의 협력이 고려될 수 있음
품목명 2		
전자상거래 (e-commerce)	선정사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약 50%에 달하는 높은 청년인구 비중 등의 요인에 힘입어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물품 구매 증가
	시장동향	2011년에 해외 기업에 의해 요르단에 전자상거래가 도입되었으나, 이후 로컬 기업, 로컬 스타트업 등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2021년 1월 기준 요르단 전자상거래 시장 가치는 5억 요르단디나르에 달함
	경쟁동향	오픈마켓(Opensooq), 온라인 종합몰(Amazon Jordan 등), 쇼핑/딜리버리 서비스(Talabat), 구매대행(Cashbasha) 등 여러 형태의 이커머스 기업이 활발히 활동 중
	진출방안	요르단인이 자주 활용하는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 소셜커머스 등 신개념 이커머스 도입을 통한 틈새시장 개발 등
품목명 3		
한국산 콘텐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선정사유	요르단에서는 최근 한국산 드라마와 음악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오징어 게임' 등 글로벌 히트작이 요르단에서도 히트하는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시장동향	2020년 7월, 한국 스릴러 영화 '협상'이 요르단에서 촬영을 진행했으며, 2021년 하반기에 요르단 왕립영상위원회는 주요요르단 한국대사관과 함께 한국 영화 3편을 상영하는 '한국 영화의 날' 행사를 개최함. 넷플릭스 등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은 '오징어 게임', '사내맞선', '지금 우리 학교는' 등 한국 기반 TV 프로그램에 대한 요르단 내 시청률이 TV 프로그램 부문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경쟁동향	요르단은 미국의 서부 영화 장르의 주요 촬영 배경지였으며, UAE 등 인근국 아랍 TV 쇼와 영화는 요르단 콘텐츠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진출방안	자막 지원, 무료 상영회 개최 등을 통한 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한 진출 고려

품목명 4		
모바일 게임 서비스	선정사유	한국의 PUBG 모바일 게임이 요르단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게임이며, 최근 요르단에서 한국산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시장동향	요르단 모바일 게임의 수익은 '22년에 4,32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성장률이 5.89%로 전망되어 '27년까지 5,761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미국의 추리 게임 '어몽어스' 및 일본의 축구 게임 'PES2021' 또한 요르단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진출방안	요르단에서 출시할 게임의 아랍어 지원, SNS 마케팅 등 현지 마케팅 업체를 통한 진출 고려
품목명 5		
스마트팜 기술	선정사유	요르단에서는 빈번한 물 공급 감소, 극단적인 기상 조건 등으로 인한 낮은 수확량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 기술이 각광받고 있음
	시장동향	Ubtic, Almasiah 농장, JAFCO 및 Millenium 농장과 같은 회사는 작물을 관리하고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며 작물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
	경쟁동향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기술이 요르단 농업 프로젝트에 활용된 바 있음. 요르단 내 대리점 계약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관개 시스템, 자동화 및 사물인터넷 분야의 외국 기술에 수요가 있음
	진출방안	요르단 스마트팜 관련 협회, 농업 분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 시연회 등
품목명 6		
뷰티케어 서비스	선정사유	요르단 암만에서는 부유층 및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방 흡입, 보톡스 시술 등이 인기
	시장동향	수도 암만에만 최소 40개 이상의 성형시술 클리닉이 소재하고 있으며 한국의 뷰티성형에 대한 인지도 및 관련 한국 제품(안티에이징, 미백 제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음. 최근에는 프리티스킨(Pretty Skin), 팜스테이(Farmstay), 글로벌맥스코어(Global Max Core) 등 많은 한국 브랜드가 요르단 시장에 진출
	경쟁동향	요르단 피부과 전문의들은 유럽, 한국, 중국 브랜드를 이용한 뷰티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요르단에 거주 중인 동유럽인들은 요르단 뷰티케어 시장에 다수 참여하고 있음
	진출방안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한 진출 모색
품목명 7		
e-러닝 S/W	선정사유	요르단은 중동에서 IT를 교육 시스템에 적용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대학에서도 지속적으로 e-러닝 활성화 정책을 펼쳐옴.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관련 S/W 및 서비스 수요 폭증
	시장동향	코로나19로 인해 '20년부터 온라인 교육이 시행되었으나 실질적인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미미하고 관련 인프라 /장비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음. 특히 쌍방향 소통 방식이 아닌 녹화를 통한 인터넷 송출 방식을 채택하여 교육에 한계가 있었음
	경쟁동향	교육부는 주로 Darsak 플랫폼을 활용해 수학, 과학, 아랍어, 영어 등 수업을 동영상 형식으로 송출. 이외에 Mawdoo3, Edraak, Abwaab, JoAcademy 등 e-러닝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 중
	진출방안	S/W의 경우 요르단 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라이선스 판매 계약을 통해 진출 모색 가능. 또한 현지에서 수요가 상승 중인 교사-학생 간 쌍방향 플랫폼 진출이 유망

□ KOTRA 암만 무역관 주요 예정 사업('24)

구분(분야)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식품	K-Food Week 판촉전	2분기/Cozmo 등
전력·플랜트	요르단 플랜트 기자재 사절단	2분기/암만
수자원	요르단 물 기자재 사절단	4분기/암만
국방·보안	요르단 기관·바이어 핀포인트 상담 지원	상시
	2024 SOFEX 전시회 연계 사업	4분기/암만
미용·뷰티	국내 전시회 바이어 방한 지원	상시
자동차·운송부품	국내 상담회 바이어 초청 및 국내 기업 수요에 따른 바이어 개별 방한 상담 지원	상시
에너지	KSP 2023/24 “요르단 그린빌딩 역량 강화”	1~3분기/요르단
종합	요르단 유력 바이어 인콰이어리 발굴 및 성과 연계	상시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 등 해외시장조사 사업	상시

▶ K-Food Week 판촉전 ('24년에 4회째 개최)

- 개요 : 현지 유력 유통망과 협업하여 국내 식품기업의 입점 활동 전개
- 추진 절차 :
 - 사전 온라인 상담을 통해 참가 기업 중 입점 유망 기업 선정
 - 유통망 SNS를 통한 제품 홍보 활동 전개
 - 입점 확정 직후, 오프라인 판촉전 개최로 입점 효과 극대화 추진
- 특이사항 : 매년 참가자 수가 증가하여 Cozmo 등 유통망에서는 '24년 개최 규모 확대 제외

▶ KSP 2023/24 “요르단 그린빌딩 역량 강화”

- 신청기관 : 주택도시개발공사(Jordan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 사업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10월(잠정)
- 주요 과업 :
 - 국내외 보고회(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추가 세미나(필요시)) 개최, 보고회 연계 고위급 정책 대화, 현지 실태조사, 초청연수·연계사업 실시 등
 - 필요시 현지 컨설턴트를 활용한 공동 연구 추진

▶ 요르단 유력 바이어 인콰이어리 발굴 및 성과 연계 사업 (상시)

- 개요 : 현지 관세청 및 상공회의소 협업으로 대형 바이어(연 수입 1,000만\$ 이상) 174개 사 및 對韓 수입 바이어 37개 사의 신규 인콰이어리 발굴 추진
 - 대형 바이어 분야별 비중 : 일반소비재(27%), 건설·기자재(19%), 의료기기(17%) 순
 - 對韓 수입 바이어 분야별 비중 : 자동차/부품(51%), 물류·서비스(16%), 전기·기계(8%) 순
- 추진 방향 : 한국 제품 수입 경험, 공사 사업 참여도 등 성과 기준 설정에 따른 바이어 관리 전략 수립 및 '1일 1바이어 접촉'을 통한 성과 확대 추진
 - 주요 바이어별 인콰이어리 발굴 및 수입 현황 등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적기 지원 실시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요르단 총선	'24.11월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	비고
'24~'26년도 일반예산법 심사	'24년 상반기 (예상)	· '24~'26년 3년간 요르단 각 부처 및 정부 단위, 지방단체의 예산 상한 설정
제36차 이슬람 상공회의소 이사회 개최	'24년 2월	· 요르단 상공회의소를 포함, 아랍 세계 57개국 상공회의소가 암만에서 회의 개최 · 이슬람 경제의 잠재력 개발, 디지털 경제 논의, 투자 컨퍼런스 개최 등 진행 예정
요르단-오만 제12차 공동각료위원회	'24년 내	· 양국 간 국제 및 주변국 경제/안보 문제 논의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Hi Design MEA 2024	'24.2.28~3.1	· 케이터링 및 관광산업 관련 각종 장식, 가정·사무실용 디자인, 가구, 조명 건축 전시회
요르단 태양광 전시회(SONEX)	'24.6월	· 태양광 기술, 태양광 시스템, 태양광 온수 시스템 전시회
요르단 국제 기계, 에너지 및 전기 전시회(JIMEx)	'24.6월	· 재생에너지, 산업·건설·전기·자동차 기계, 보안 및 카메라 관련 용품, 물 기술, HVAC/R 등 전시
요르단 방위산업 전시회 (SOFEX JORDAN)	'24.10월 또는 11월	· 방산 분야 요르단 최대 전시회로 아랍 주요국을 포함, 40개국 이상에서 약 200~300개 사 이상 출품
국제 식품 및 기술 엑스포 (INFT Expo)	미정	· 식품 및 음료 산업 분야 전시회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호빈	차장	암만 무역관	+962-6-510-4060(205)	hlee@kotra.or.kr
2	이정현	팀장	암만 무역관	+962-6-510-4060(212)	kotra4@kotraamm.com

2024
요르단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ISBN : 979-11-402-0874-6 (95320)